朝鮮日報

新聞價: 壹枚 四錢 △壹個月 八拾錢 △三個月 貳圓 △六個月 四圓 △壹個年 八圓 △郵稅並九拾五錢 △地方必先金

廣告料: 五號活字 壹行 金 △ 四號活字 △ 七號 △ 記事中 特別

發行所 京城府 朝鮮日報社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 印刷人 金

時評

些少한重大問題

× 天下國家를생각하고言論하는것이從來로士君子의本領이라한다 小小한利權問題들에는걸지안는것이그의堂堂한態度이라하다 그는매우可하다 그러나天下國家를堂堂하게言論함이堂堂한이의當堂한態度이자마는一步一步식必要한利權을빼앗기고饑死의運命에싸지는것은또한엇슬가업는일이다 現下의朝鮮人의온갓問題를根本的으로解決하지안코는안되겟지마는各地의各階級의人士가모다一步一步식自己에게當面한問題로써求存的運動을닐으키어야한다 扶餘郡良化面民數十人의所有인三萬餘坪의草坪이無理하게國有로編入된데對하야利害關係者들이猛烈한反抗을하여온것과또하여가는것은當然한일이다 國有의時期는지나서能次郞左衛門號의貸付이나拂下로돌어가고마는것은非常치안흔일이다 이러한點에서그의生存權을擁護코저하는것은些少한듯한重大問題이다

京大總長의辭職

× 『日鮮融和의機關』이라는標語로서그의存在의意義를삼는다고有吉前總監에依하야宣明되든京城帝國大學은아즉그正式開學도보기前에그總長으로內定되엇든服部文學博士가辭職하엿다한다 그리고그理由는總督府와 意見의相違에因함이라한다 服部氏는北京에久留하든有數한漢學者로東洋大勢에留意하고學의獨立을主見으로하는者、이제意見의相違가잇다하니急濟的『日鮮融和』의不可함을看破함인가? 韓國政爭志의著者로서特別히朝鮮人의心理에精通한다는帶原州氏가後任으로內定되엿다하니氏는또무슨『特殊한抱負』가잇는가?

朝鮮에米探?

× 奉直開戰以來 變名한수상한米國人多數가鮮滿에몰려와서무엇인지調査하는中임으로全朝鮮憲兵隊는嚴重히彼等의行動을監視하야이미確的한證據를어덧다한다 무슨證據인가? 그리고京城의米國領事館에서도朝鮮人과中國人을使用하야各方面으로一朝有事한때의對應할種種의調査를『』다고한다 무슨調査이냐? 한갓市虎蛇의無用한鬼胎를품음인가? 朝鮮二千萬大衆의決코無訓練、無統一한輕擧는업슬줄밋는다 朝鮮에米探? 그는다만暗鬼를낫는無用한想像일것이다

◇中國大動亂◇

山海關의大激戰 直軍增援二萬名

(天津十八日發) 十七日朝부터十八日朝까지山海關及其後方에亘하야直軍의增援이二萬名에達하야終日終夜激戰을繼續하얏는데殆히山海關北方二朗廟의要地는旅順의二〇三高地와如히兩軍爭奪의焦點이되얏더라

奉軍의惡戰苦鬪

(奉天十八日發) 石門寨의戰況을視察한某軍事家는말하되 石門寨戰爭은實로珍奇한惡戰苦鬪이엿다、同地는매우險峻한地로서其攻路가一條뿐이요守함에는易하고攻함에는難하야奉軍은直軍에게狙擊되야非常한苦戰이엿섯다、最初부터五千名假量의犧牲者를내기로覺悟하고一兵이斃하면一兵을補充한다는肉彈戰을하야其攻擊은매우猛烈且勇敢하얏다、此戰鬪에서奉軍이가장困難하얏던것은運搬難으로砲彈이不足하야一氣에占領치못하얏스며又飮水가업서도奉軍은忍渴苦戰하야遂히占領하얏는데大體로該攻擊에는追擊砲로써砲戰한것이다

激戰後 直軍石門寨奪還

(天津十八日發) 十八日早朝山海關方面에서奉直兩軍間에大激戰이起하얏는데直軍은必死의力으로防備에努力하는中이며又十八日直軍의發表에依하면九門口、石門寨의要地는直軍의增援隊派遣에依하야此를奪還하얏다더라

負傷兵四千名 全部가奉軍中의精兵

奉直戰線特派員李相喆

(奉天十八日發) 張作霖의信用이두거운奉天軍醫顧問守田福松氏를그病院에訪問한즉氏는語하여曰『山海關激戰에負傷된者는約四千名으로서그中千五百八十六名은目下奉天에서治療中인바將校約百名을爲始하야重傷者가만으며그中에는頭部로부터米國製의彈丸을파낸者도잇다또負傷者는거의奉天에잇는第一旅團張學良及第六旅團郭松齡의軍隊이며全部奉天軍中의精兵이라云云(李特派員)

奉軍이七分勝 孫科氏가傳하는 張作霖氏談話

(奉天十八日發) 來奉天中인孫文氏令息孫科氏는往訪記者에對하야張作霖氏는戰爭에이미七分이지는 勝利이며 戰爭後張氏는依然 東三省에止하고 中央의일은 段祺瑞氏等에게 一任한豫定이라는등을漏洩하얏다 고語하더라

蘇浙時局을解決코자 齊燮元撫慰條件提出

(上海十八日發) 數千의指揮者를失한浙江軍隊가十八日早朝에當地居留地에浙江軍으로서駐屯하고잇슬뿐아니라此等軍隊는悉皆充分히武裝하고잇슴으로浙江軍을驅逐코자하면勢不得已激戰을惹起할形勢일뿐아니라一般人民外지가兵禍에罹하야掠奪을蒙할虞가잇다居留地外에在한浙江軍은一萬乃至一萬五千이라하야精銳한武器를携帶하엿스며爆彈도携帶한者도잇다 他方의齊燮元氏는此等地點이居留地에接近하엿슴으로武力을用하야此等軍隊를驅逐하라고도하지아니하며特히齊氏는浙江軍을擊破하면浙江軍은中國人街에逃亡하야掠奪을行할것을慮하는中이다齊氏는十八日浙江軍使節에게對하야彼等이江蘇軍에게武器를提供하면他處에서來한者에對하야歸省하라는旅費以外에一人압해金十弗

英利益擁護의番犬 直軍上陸을拒絕한 日司令官行動에對한非難

(東京電) 直軍이十六日秦皇島의海濱工務局棧橋에서上陸코저함에對하야吉岡司令官은英國軍司令官의申請에應하야專任司令官으로서의職權으로서其上陸을拒絕하얏슴으로直軍은工務局棧橋以外의地點으로부터續續秦皇島에上陸하고잇는模樣인데此로因하야同地의日本居留民의生命財産에危險을憂慮하야旅順碇泊의驅逐艦三隻을十七日秦皇島에急行케하야萬一을警戒하고잇는터이며秦皇島에極히深大한利害關係가잇는英國이其經營하는海濱炭坑의安全을保護하기爲하야日本守備軍 協力을求한것은當然한일이라할지나日本司令官이此에應하야英國의番犬이되야其利益擁護에親히主動者로서의協力을與하는데에就하야서는政府部內에도若干의非難이잇스나外務當局은右直軍의上陸에對한日英協同動作의事實을極力否認하는中이더라

青島에도戒嚴令 信書도檢閱

(青島十八日發) 青島는十八日早부터戒嚴令이公布되야戰時狀態에入함으로內外人의通信도檢閱하기로되얏다더라

投降兵에 旅費支給歸鄕

(上海電) 浙江軍은徐樹錚의退去로因하야頭目을失하고盧永祥의部下陳樂正、揚化昭等은租界에逃入하엿스며齊燮元孫傳芳式을支給한다고提議하엿다또當地紳商代表及浙江軍代表는十八日右條件에就하야商議하라고崑山으로向하야出發하엿는데一般으로齊氏의提出한條件으로時局이解決되기를希望하는中이더라

逮捕命令 盧永祥外四名

(北京十七日發) 政府는十七日大總統令으로서地方長官에게命하야盧永祥、何豐林、陳樂山臧致平及楊化昭의五名을逮捕할旨를公布하얏더라

孫傳芳氏 上海入城

(上海十八日發) 孫傳芳氏는十七日午後上海에入城하야省創立第一商業學校內에서英國과伊太利總領事의訪問을受한後孫傳芳氏는三日間上海에滯在하야治安維持에努力할터이오其後直時杭州에歸하리라더라

安民布告

(上海十八日發) 孫傳芳氏는 上海入城後福建浙江巡閱使의名義로安民布告를發하얏스며租界退去命令을바든徐樹錚氏는米國에往한後英國에渡하리라傳한다 그러나奉天軍의形勢에依하야는米國行을吾止할지도未知이라더라

도上海로들어갓슴으로浙江軍은繼續되야兵士는銃을金錢으로밧구고江蘇軍에게投降하엿다、이로因하야江蘇軍은六十萬元을上海로送하야浙軍兵에게給與하야歸鄕케하는中이며又旅費支給을受치못한者는掠奪을行하는中인데吳淞의掠奪事件도此等敗殘兵의所爲라더라

一週一瞥

中國動亂의趨勢

盧永祥의日本亡命과同時에安福派의徐樹錚推戴로써蘇浙再戰說이잇섯스나死灰復燃의夢想은워낙實現이不可能하엿든것이다하물며徐氏는段祺瑞의寵將으로曲同豐과함께狐假虎威의驕肆한態度로써實로安福派潰滅의禍孽을지은者라敗餘의殘卒로써다시頹勢를挽回키不能한것은오히려當然하다 이제徐樹錚은再次上海共同租界警察의拘禁中에싸저장차日本에亡命케되리라하며孫傳芳以外戰勝諸將은上海에進入하야今期의蘇浙戰이一段落을진것은勿論이오 英人方面의意思로서左右되는上海의租界當局이租界의治安이란口實로써一黨一派에치우치는處置는또한留意할만한點이다 이와反對로

北方의奉直戰

은吳佩孚의親戰도아즉預想과가튼戰績도업시 돌이어 山海關陷落、直軍齊燮의報가傳한다 奉天側의宣傳이라準信키어려우나山海關의一部臨楡縣部近을占領한은確的한事實이라한다 特殊한事情下에잇는中國에잇서서戰局의一勝一敗는오히려深大한關係가잇는것이아니지마는吾人의가장注目할點은馮玉祥、王承斌等이段祺瑞와內通하야北京을反擊함으로北京政府는沒落될運命에싸진다는風說과및大總統曹錕氏의脫出準備說그것이다 安直奉直兩戰役을치른後直隸派全盛의時期가되자마자벌서부터曹錕、吳佩孚兩派의分裂의傾向이생긴것은識者의共認하는바어니와曹總統派의一團이잇서洛陽派와天津派는暗鬪가잇섯고이外에도保定派의一團이잇서洛陽의吳氏直系을牽制하는것도事實이다

吳氏는山東武夫

로서張敬堯에게冷遇를밧고그뒤에王士珍、靳雲鵬의力薦과曹錕의拔擢으로써今日의地位를어든바그가知遇의恩義로써曹錕을에게對하는것은事實이나勁悍猛한으로有名한그가眼中에이미曹氏가업고第一次奉直戰以後로曹吳의意見이不一할뿐아니라그의睽離와疏隔이日甚한形便이다 이제다시曹吳兩派의人物觀을보건대曹氏直系에는江蘇督軍齊燮元、第三軍總司令馮玉祥、後方準備總司令王承斌、總理顏惠慶및高凌霨顧維鈞曹銳邊守靖張志潭、陸錦、王正廷、潘復、施肇基外交武諸人이오 吳氏直系에는現第一軍總司令彭壽莘、福建督理孫傳芳、湖北督軍蕭耀南、河南督理張福來、江西督理蔡成勳、安徽督理馬聯甲및高恩洪、孫闓林外文武諸人이다이모양으로兩派가對立하야曹氏一派에서는항상現狀維持로써自派의勢力을維持하고서吳氏의勢威가擴張할가實慮하는反對로

吳氏는武力統一

로써 張作霖을滅하고孫文을驅逐하야써廢督裁兵의主張을貫徹하려하는바大小의將軍들이隱然히吳氏를錮直府의頭目들이라猜疑하는것은直派內部의禍根이오中國動亂永續의素因이오할하셔今後曹派의形勢를더욱預測키어렵게하는바이다이제馮玉祥은陝西河南의督軍의要職을閑하엿스되吳氏에게冷遇한배되며王承斌은曹總統擁立에殊勳者로自處하되其職、自意에不滿하매모니二心을품고第二軍總司令王懷慶도前記二人과함의形勢를觀望하고態度가模糊하야謠言蜚語의本源이되는바어니와만일奉軍이再次大敗하고吳氏의勢威를다시牽制할수업다하면彼等의地位도되어安固함을엇지못할것이니그들이首鼠兩端으로風雲만睥睨하는것은또한必然의일이다 一九二二年五月初旬當時通勝의勞로豫州의長辛店方面에서對敵하든奉軍이第十六師長鄒芬의直派에內應함과및趙恩麟、陸錦、王懷慶等의直軍加擔으로因하야急地에大敗하든것과가티馮王諸將의倒戈로써直軍의大敗를보리라고想像함도無稽한은아닐것이나吾人은아즉도이에對한確言할勇氣가업다 그러나主義와政見에因하야行動하는것이아니오無用한陰謀로서

反覆無常한中國

의軍人들의일이오 優柔不斷하야銷物의威望이업는曹錕과現代에잇서서武力統一을夢想하는無謀에갓가운吳佩孚로서代表되는直隸派內部의暗鬪와및反直派唯一의強敵인張作霖의沒落으로吳氏의橫暴을招來할것을顧念하는馮、王諸將의搗武는結局더욱時局의紛糾와混亂、그리고中國의國威의失墜를招來할것만은確實한일이다만일또一敗塗地하야再擧의計劃이업는段祺瑞가舊部下諸將을籠絡하야다시時局의新局面을開拓할수가잇슬는지? 一個의元老政治家로서의復活은別問題로하고다시軍閥의巨頭로서張作霖等의反直派諸將을統率하야昔日의地位를恢復하기는勿論不可能할것이다 그리고또今日의現勢로는吳佩孚가長驅大進하야奉天軍을全滅케하고東三省을그의威令下에두리라고도생각되지안는다 直派의分裂 張作霖、段祺瑞等의聯結로意外에紛亂을招할는지 또다시兵變、政變만此長하고通電및會議等의變幻無常한局面을맨들어가고다음에오는어떠한禍因을促成하리라고觀測된다 北伐을呼號하는廣東의孫文氏가近者數三日의市街戰으로서간신히商團軍을破하고二千三百餘의民戶를灰燼에돌린것은讀者의周知하는바이다

歐洲政局의近況

反動이냐進取이냐保守이냐改新이냐의判斷이생길英國勞働黨對保守黨의政戰은漸次白熱化하는中으로某地에서는『맥도날드』氏의對露政策을反對하야暴行을加하려하는女子가잇섯다하며『로이드·조지』氏는『맥도날드』氏의政策을惡罵하는一面에『맥도날드』는英露條約과倫敦會議의成果로된獨逸賠償問題解決件으로써自家의成功임을辯護하고政爭에制勝할것을自信하다한다 保守的傾向이濃厚한英國民이今番의政爭에 엇더한態度를가질는지자못吾人의留意할點이다 『도쓰』案을中心으로한倫敦協定에對한處置問題로써多數人民黨(中間黨)의支援을밧기는獨逸의『맑스』內閣은國權黨을拘擁하는改造內閣으로써『도쓰』案實行에着手코저하든것이마참내失敗에돌어가고다시國會를解散하야國民의輿論을뭇고저한다지난五月의總選擧에反動派의國粹黨과및極左派、共產黨의擡頭를보게되엿든同國今後의政爭도또한可觀할바잇슬것이다 要컨대歐洲의政局은지금反動과進取의彷徨期에잇다 一는[illegible]기로하……(十九日 一記)

對中不干涉 在滿日人大會

(奉天十八日發) 在奉天日本人有力者는對中不干涉의政府方針에共鳴하야日本의在滿權利保護等에就하야協議코자來二十三日滿洲居留民大會를奉天에開하고其決議文을奉直兩軍司令에게電報할터이라더라

食糧禁輸 一兩日中解除

(奉天十八日發) 旣報와如히張作霖氏가食糧品의輸出을禁止한것은外商等이此等食糧品을直軍側에供給할것을念慮하기때문이던바領事의抗議로一、兩日中에解禁하게되리라더라

日本新公債說은 事實이아니다

(倫敦十八日發) 『로이타』通信은官邊으로부터得한報道에依하면現在流布되는日本新公債가來週火曜日에發表되리라는所聞은事實이안임으로此에關한交涉도進行되지안이엇다고斷言하얏더라

英議員候補指名 總數千四百名에達하야

(倫敦十八日發) 總選擧의候補者指名은公式으로終了되얏다、그런데非公式候補者表에依하면候補者總數는千四百人에達하얏는데其中保守黨候補者五四三、勞働黨五〇七、自由黨三五〇、反對候補者가無하기때문에自動的으로選擧될것을期待하는候補者約五十名이有한바只今까지分明한此種候補者中에는前首相『쏠드윈』下院議員議長『호잇트레ㅣ』及國民의父議員이오下院의父되는稱이잇는『떠ㅣ비ㅣ오콘놀』氏가잇더라

婦人立候補가四十一名

(倫敦十八日發) 今回總選擧에婦人候補者數가增加한것은特著한現象이나卽千九百十八年의總選擧當時에는僅히十六名이오또昨年十二月의總選擧時에는三十四名에不過하든것이今回는今日까지에만벌서四十一名의婦人의立候補가되엇다。卽勞働黨二十一名保守黨十二名自由黨七名無所屬一名이더라

今後英內閣은何黨에 保守黨이또出現될듯

(쎄네바十八日發) 英國의外相『칼쏜』卿은同國總選擧의結果를豫想하되自由黨百名、保守黨二百九十五名、勞働黨二百十二名이當選되리라고말하엿고또前藏相『멕켄나』氏는自由黨百名、保守黨二百八十五名、勞働黨二百二十五名이當選되리라고豫想하엿다。엇제든지今番內閣은아마保守黨內閣이될것이오그結果英國은『쎄네바』議定書의批准을無期延期하게될는지알수업스며畢竟이러케되면佛國의『에리오』內閣은財政上의諸困難과相並하야不利한影響을밧게될것이다그러나急進社會主義者는그政權을繼續하는中이더라

英國海相死去

(나웬十九日發) 英國海軍大臣『파아치、마코드』卿은十八日오倫敦에서死去하엿더라

獨公債應募額 英國에서十三倍

(나웬十七日發) 英蘭銀行의公表에依하면英國에在한獨逸公債應募額은十三倍이더라

巴里總督 賣國奴와握手

(巴里十八日發) 佛國文豪『아나톨、프랑스』氏의葬儀에서

佛法紙幣 再下落憂慮 獨公債募集으로

(巴里十八日發) 獨逸國債公債八億馬克中佛國의引受額은十九日에巴里에서募集하라고佛國法紙幣는金貨로交換할手段을取할터임으로이로因하야佛國法紙幣國債가下落할것이라고佛國政府는新條約草案에抗議하는中이더라

日、佛新通商 正式交涉開始

(巴里十七日發) 日本大使館과佛國政府間에新通商條約에關한正式交涉이開始되엿다日本側에서는佛蘭西는舊條約에包括되어잇는最惠國條款의撤廢을不肯하는模樣이라고云하더라

直軍赤峯占領確實 奉軍의死傷者三千餘名 旅長一人도戰死하엿다

(十九日奉天發) 確實한方面의情報에依하면直隸軍의赤峯占領은事實이며이로因하야奉天側에서는死傷三千을내엿고旅長도一人이戰死하얏는바奉天總司令部某謀의말에依하면赤峯은奉天軍에게그리重要한곳이아니라한다(李特派員)

露艦船海蔘行 事實無根이라고

(倫敦十八日發) 巴里로부터報道에依하면露國艦船二十五隻이巴爾齡海로부터浦潮海威에向하야곳出發하기로準備中이라고云하얏스나當地의露國大使館은該報道는無根이라고斷言하얏더라

社會主義共和國 中央執行委員會

(莫斯科十七日發) 勞農社會主義共和聯合國中央執行委員會의會議는十七日부터開催되엿더라

郵船社長後任 白仁長官이承諾

郵船社長으로白仁製鐵所長官의承諾을得하얏슴으로來月初旬臨時總會에서選擧할터이며重役의去就에就하야는十一月二十七日定時總會에서決定될터이나白仁長官은社務에關하야는아즉精熟치못함으로社務에精通한者를社內에서必要가잇다하야熊川、大谷兩社內重役留任說을하는者가잇스나아즉決定치못한듯하며社外重役으로는永田仁田氏가就任하리라더라

反白仁熱白熱

日本郵船大株主間에反白仁社長熱이高하야來月七日의臨時株主總會에는一問題가起하리라고觀測되더라(東京電)

製鐵所長後任은

(東京電) 郵船新社長으로白仁製鐵所長官이親任承諾한結果그後任으로는行政整理의際임으로農商務省內의人物中에求하는方針인바現特許局長友崎才四郎氏가有力한候補者이라더라

冗員淘汰 十一月과來年三月

(東京電) 十八日의次官會議는各省次官塚本法制局長官太田警視總監等이出席하야首相官邸에서午前八時로부터開催하얏섯는데議題는行政整理에關한整理事項의時期에엇는바各省及其他官廳中冗員淘汰에就하야는速히整理가不可能할時는人心을動搖식힐念慮가잇는故로勅令으로써官制를改正할수잇는官廳은十一月에、法律에依치아니하면官制改正이不可能한官廳은議會의協贊을要하야來年三月、二回에亘하야淘汰할事와淘汰職員의名譽를斟酌하야又는增給、許諾等의手當與方法을決定하얏스며또退職手當의一致되엇슴으로直接으로는政府에서文面을整理한後閣議에上程할터이더라

地方小作官會 三十日까지續行

(東京電) 地方小作官會議는十八日農商務省에開會하고高橋農相의小作調停制度實施에關한訓示가잇슨뒤에長滿農務局長이執務上의心得事項을指示하엿는데本會議는三十日까지續行할모양이더라

郡役所廢止와 政府의方針

(東京電) 郡役所廢止에就하야는來二十九日에與黨三派와政府가曹議案作成에對하야協議할터이라는데지에內務省은廢止할郡役所를決定할터인바政府의方針은漸進主義를取하고三派要求와如히一時에全廢할意嚮은업다더라

文官試驗改革

(東京電) 法科萬能打破의意向으로帝大法學部에도文學課目을挿入하기로內定한故로不遠間高等文官試驗課目에도大改革을斷行하리라더라

教科書價低減

(東京電) 當局은國定教科書의減價를斷行하얏더라

航空界의模擬戰 十一月에擧行

(東京電) 來十一月八日을期하야日本空軍界未曾有의大模擬戰을實施키로決定하얏다는데卽霞浦航空隊를中心으로하고所澤飛行學校도參加하야水陸兩軍의飛行機百餘臺와『아스트라』航空船을參加하야東京霞浦間의上空에서戰鬪를開하고霞浦湖面에는模型軍艦十隻을浮하야爆彈、雷魚機關銃等을用하야新武器를使用할터이오當日은財部海相을始하야海陸首腦部其他朝野의名士를霞浦附近에招待할터이라더라

豫算削減과 鐵道直營의運命

最近東京으로부터某方面에傳한情報에依하면下岡政務總監은目下中央政府와朝鮮의豫算及兩政整理에關하야折衝에努力中인바中央政府의意嚮으로는下岡政務總監의携帶한朝鮮豫算總額에對하야更히削減의希望이有함으로總監은其說明에努力中이나政府의固執이意外로強함으로困難한狀態에잇스며從하야其細目에至하야는아직問題가되지못하얏고鐵道直營과如한도中央政府로는아직그다지進行되지못한貌樣이오豫算面에削減을加하게되면當然히直營移管에伴하는手當等의支出은此際에頗히疑問의運命에立케될事는明確한事인데一方으로拓殖局에서는事態가如斯함을因하야此際에委任經營을그대로持續할境遇를豫想하야納付金에關한것을考慮해보겟다함과如한氣分을가지고滿鐵側도頻數히折衝을行하는貌樣이다 一方安藤京鐵局長은但城案、鐵道部方面과의往來에寧日이無한形便으로納付金의問題도中央、外總督府、京鐵局間에相當히進行되는것가트니或은直營幷行하야進行될는지모르겟다고觀測되더라

郵便爲替金送受額

大正十三年九月中朝鮮內及各地(滿洲를除한)間에送受替取扱額은朝鮮에到着한것이二百七萬一千餘圓、朝鮮으로부터發送한것이三百十八萬八千餘圓이요又朝鮮으로부터滿洲에送附한金額은二十六萬七千餘圓、朝鮮에到着한것은二十四萬餘圓이더라

辭令

總督府道警視 兼外務省警視 神宮孝太郎
同 菅井乙平
免兼官
總督府道理事官 川崎勇
同 技師 杉木千代藏
同 郡守 權重明
同 郡守 張修淵
依願免本官 (東京電)

人事消息

▲李道榮、李漢卨、李應均 三氏는探勝次로金剛山에旅行中이더니昨朝歸京

▲皮敎高氏(本社員)遭其外艱喪今二十日午後四時返虔(東大門外車塢)

八面鋒

○京城帝大의、未來總長服部博士는、意見衝突로畢竟辭任하엿다、그러고後任은帶原博士라나、그보나는、警務局長兼任이、第一適任、

○中國動亂에關한、日本國民大會決議文에依하면、『日本國民은、中國動亂에對하야、衷心憂慮를不堪한다』고하엿다、그理由는、特殊關係가잇는、滿蒙을다칠가암이라나 頗正直한決議、

○一千二百萬磅의、獨逸新公債를、英蘭銀行에서、賣出하자、應募者遝至、卽日大滿의盛況이엇다한다、中國政治家가 [illegible] 침사불이나흘일問題、

謹告

十九日附本報第一千五百一號는記事中當局의忌諱에抵觸되야發賣禁止의處分을當하얏기로該記事만을削除하고號外로發行하얏기玆에謹告

朝鮮日報社

肺病 痔疾 梅毒 痳疾

責任保證

등으로 백약이무효하야 고통하시는이사는 지금통지하야 권문으로 유명한동경또락구 약을 복용하시오 여하한난증이라도 당당하야 거근식힘니다 주문하실시는 증세를자세히긔송하시오

경성광화문우편국근처이삼
京城光化門郵便局近向二三
東京또락구商會
滿鮮本部

島村博士證明 健腦丸 KENNOGWAN 腦病良藥

主効 ▲腦充血 ▲逆上 ▲頭痛 ▲腦膜炎 ▲耳鳴 ▲鬱憂 ▲神經痛 ▲眩暈 ▲健忘 ▲腦卒中 ▲不眠 ▲便秘

腦神經系統의疾患에理想的의良藥이다

一週間分을試用하시요

貴下는變한것갓치頭腦가明確합니다

價三十錢부터七圓外지 ◆全國各藥店에有함

本舖 大阪市順慶町 東京市箔屋町 丹平商會藥房

000231

京城鍾路二丁目拾四番地
歐米帽子、學生帽專門 鍾路商會
メリヤス、洋傘專門 高麗洋行
電話光化門一一八七番
振替京城三九六一番
本商會發行商報請求則無料贈呈

營業科目
絹緞布木 石油雜貨 米雜穀類 肥料糖類 砂糖、麥粉 牛骨、牛皮 絹系布 貿易及 委托業

京城府武橋町四十六番地
昌興公司
電話光化門一〇八〇番

補藥의覇王
男女老幼通用補血強壯劑
大味丸

萬口同聲으로 滋腎、潤肺、補血、養精에第一特効함을絕叫합니다
時政淸秋의妙期에 한두劑服用하시는것은 一粒一丸이모다살로變하고피로化하여집니다
身外無物인것은누구나아는바이올시다 點心代用으로나、飮酒喫煙의代에無時로잡수시면健康하아지시오리다。

藥價 一劑金六圓

京城黃金町二丁目 朝鮮賣藥株式會社 振替口座二四八〇番

時勢가昂騰치안으면正米의時 … 二百餘丁을縮少한바되엿다이 … 旱災와水災蟲災等諸凶災가만 …

十八日後場 金澤 三七、五〇 大阪 三十八圓六十五錢 … 玄米 … 白米 … 小麥 … 一、六〇〇 … 一〇〇 …

靈川面에 또 小作爭議
東拓會社의 橫暴에 憤慨
죽게된오백여명동력소작인은 십륙일그회사지뎜에몰리어갓스나 결국조흔결과를엇지못하고도라가

黃海 第四信
◇沙里院에서 饑饉調査第三班 金達鎭

금번에 참혹한재해를 당하야 더나할것업시 굴머죽게된 황해도(黃海道)도내에잇는토디는거의다동양척식회사 (東拓)소유인바 아동척회사에서는 굴머죽어가는 일반소작인들에게 잔인포학한행동으로 소작료를 청구하야 그러지안해도 죽게된농민들은 굴머가며라도 시각을부지하기가어려워서

표류하야 떠나가랴고속속으로들청하는집이부지기수이라는데 봉산군령천면 해서리(鳳山郡靈川面海西里)에는ㄱ백여명의 농민이 거주하야 동척회사의토디를 소작하다가 여러가지재해로 거의수확이 아조업는곳(皆無地)이나 다름업시 되엇는바 그중에혹재해를 덜당해서 종자나차질만한 곳에는 동척회사에서 전부가져가랴함으로 그곳소작인대표약

륙십여명 으지난십륙일에 동척ㄱ사사리원지뎜에 또몰려가서 거리에서밤을 새워가며 여러가지진정을 하엿스나 무정한그회사지뎜에서는 그것이 공평한처리임으로도 달리할수는 업다고포학한거절을 함으로 몰려갓든 륙십여명은 엇질수업시원망의 눈물을먹음고 십륙일오후두시경에 각각도라갓다는데 그들은 먹을것은업고 동척회사의부대임에 견데어갈수가 업슴으로몰원간남부녀며하고표류하야떠나간다고 하더라

一面에千二百戶
국부뎍으로심한안동디방

慶北 第七信
◇安東에서 饑饉調査第二班 李瑞求

국부뎍(局部的)으로 참해를보왓다하는 안동군(安東郡)은 엇더하가 농사가거의뎌문이도 업게된 풍서면(豊西面)은 말할것도업시 참담한국부뎍 재해를말하나그외에도 피해를 당하지아니한곳이업서서 금년안에 당장굶주릴사람이 일천 팔백오십호에 팔천삼백여십오명이며 겨우금년은 넘기드래도 명년일월부터 하는수업시 굶게될사람이실로 오천오백오십중에 이만사천구백칠십오인이니 그들은 결국굶어죽거나 그러치아니하면 류리개걸하는외에 다른도리가 업는사람들이라한다 그중에 가장피해가심한 풍서면(豊西面) 파밋풍서면을 이웃한 각면의일부를보면

▲豊西面 九潭洞 道陽洞 佳谷洞 素山洞 葛田洞
▲豊北面 五美洞
▲豊南面 廟德洞 笑山洞

등여덜동이인데 당장 주린배를채우지할수업서서 렴치업시 보리죽이나마쑤어먹는 사람의 집으로 구걸을가며 또는도토리낭파콩닙으로 런명을하는 사람들을볼때에는 그가막히어 오래머할수가업섯든것이다 풍서면 한곳에서만 일천이백이이 굶고잇스니 커가엽슨동포들의 참상을엇지하겟는가?

免稅六千餘圓 수리공사계획

이에대하야 군수 리윤영(李胤榮) 씨는 말하되 전군뎍으로보면대개 이할오분가량의 감수이나 풍서면을 중심하야 부근일대에는 작년의삼분의 이도거둘수업는참상에있는 것이라 디세를면제할 금액만하야도 륙천일백원이나되는 것이올시다 그중에디세면제가 가장만흔풍서면 사무소의 명년 ㅇ비가 턴문ㄴ도업스나 큰걱정이요 궁민들구제할방책으로는 풍서면의 수리를뒤하야 큰언뎅을파기로하고 공비이만원을 도에청구중이나 그것이허가가되면궁민에게도동할일을 더줄작뎡이며 소작인을구호할능력이 잇는디주들은 죽는소리만하니 엇지될지모르겟소라더라

나락멍석에콩닙 로인의탄식소리

도양동(道陽洞)과갈뎐동(葛田洞)부근을 지날때에 역시호박닙파콩닙을 곡식알과섯거서 멍석에무수히 펴서말리는것을 보앗는데 그것이 궁민들의 허수가려먹는생명료(生命料)라하니 엇지 한심하지안으며 그것을바라보는 로인은 그가막혀서 몸든짓는소리로 나락멍석에콩닙을너ㅅ기새쏘침걱정은언소한다…… 아이것이얼마나비참한소리이랴

警官의개쏫고 老人被殺!
朝鮮人은개보다賤한가!
개쏫는다고로인을따려 필경은죽게한영양순사

경상북도영양군(英陽郡)에잇는일본순사 좌등리작 (佐藤利作)이는 지나간일일오후에 자긔집에서기르는 개한마리를 다리고영양군영양면동부동 박명근(英陽郡英陽面東部洞朴明根)(六○)의집근처를 지날때에 마츰좌등이가다리고가든개가 박명근의집나무가리에다가 오줌을 누랴고함으로 권긔 박씨가『이개!』하고쏘찻더니 좌등이는 가든길을도라와서 박씨를보고『왜나의개를쏫느냐』하면서 별안간달려들어 뺨을따리매 박씨는금년륙십이명은로인으로 아모리 경관이기로 무리한행동은 그대로바들수업다한즉 좌등이는 경관반항이라고 구두발길도 함부로거더차서 인사불성이되엿는바 박씨는 이래병석에누어 신음하다가 드듸여 지나간십일오후한시에무참히사망하엿더라

醫師도證明 타살이분명
醫師 鄭求忠氏談

박명근(朴明根)이가 일순사 좌등에게 어더마저 무참히사망하자 그의족하 박명복(朴命福)은강도(江島)라는 공의(公醫)에게진단서를써달라고 청한즉 강도는 여러가지핑계로진단서작성을거절하다가 나종에 할수업스매 타살당한것을 병사(病死)라고써주엇슴으로 박명복은 크게분개하엿스나엇지할수업슴으로다시안동(安東)검사국으로좌등순사를거러 고소를뎨긔하여 검사는 서긔와 검안의(檢案醫)의학사정구츙(醫學士鄭求忠)씨등과함께 동일오후륙시경에 자동차로 영양에 도착하야그이튼날아츰에 해부검사하얏는데 검사한 덩구츙의학사는 아래와가티말하더라

『과연 내가죽은사람의시톄를 해부검사하엿는데 죽은원인은 병사가아니오 확실이 어더마저 죽은증거가 만슴니다 그러나 아즉 이사건이예심에 붓치를아니하엿스니검안을자세히는 발표할수가업소이다 하여간 불상한일이요』(안동)

鄭在達連累一名
재작일인천에서또데포

재작십팔일 오후에 인천(仁川)경찰서에는 별안간 경성서형사수명이낫하나자 인천서 고등계형사와 협력하야 모박면을중심으로 활동을시작하더니 밤여덜시경에는 시내외리(外里)에서 리모(李某)라명을 검거하야곳축현(杻峴)서 차를 태어가지고 즉성으로향하엿는데 사실인즉 철머비밀에 부침으로그내용을알수업스나 모박면의 권하는바에의하면 권긔리모는 방금경로서에 데포되야 취됴중인정재달(鄭在達)일파의 련두자라는데 정재달은 데포되기전에인천에와서수일간권긔리모와합의무슨일을계획하다가 경성에올라가서 그만데포 된터이라더라(인천)

鄭圭璇은 경찰범으로
사건은ㄴ시모호

오래전부터 서대문경찰서 고등계(高等係)에서 취됴중인 정규선(鄭圭璇)의사건은 방금 경찰범(警察犯)이란죄명으로취급하는모양인데 그간련두자로인뎡할만하정규선의친구륙칠ㄴ을검속하야 고심취됴하엿스나 그들은도모지 입을열지안는동시에 증

演習에奔忙한樂士
입장권은금일부터미리판매
本社主催의慈善音樂

긔근에우는동포를 조곰이라도도읍자는뜻으로조선일보사에서주최하는녀류자선음악대회(女流慈善音樂大會)는 이미출연할악사도 원만히 작뎡되얏슴으로각각련습에 분망중인데 이번음악회는 출연할악사로보던지 주최한취지로보던지 대성황을 이룰것은 분명함으로 입장권을당일회장에서만 팔아서는 매우복잡함을 면치못할듯하야 본사에서는 일반의편의를도읍고자 좌그삼처에서 금일부터 입장권을미리팔터이며 입장료는 일원과오십전의 두가지로 되얏다

鍾路二丁目 東亞婦人商會
鍾路비거리 大昌洋靴店
安國洞비거리 以文堂書店

朝鮮日報主催
饑饉救濟女流慈善音樂大會

出演樂士: 梨花合唱隊、培花合唱隊、尹心德、韓琦柱、尹聖德、金合羅、미스·리、中央幼稚兒童、京城樂隊

◇時期 明二十一日午後七時半
◇場所 長谷川町 京城公會堂

會費一圓·五十錢

姦通事件의 金瀅植遂拘引
취됴를마치고
녀자리선는파항되

평양 동아일보지국장 김형식(金瀅植)과 그의은닌 리덕환씨의처 리선님(李善日)사이에 부정한행위가잇다하야 일시 평양에 룸의가자자하얏다함은 이미본지에 보도하엿거니와 그후리덕환씨로부터 평양 디방법원에리혼소송이 뎨긔되고 일반의여론이 나날이놉하가매

김형식은 자긔가평양에오래잇슴이 불리함을알고 공부를청탁하고 일본으로건너가 이소송의 되여나가는형편만 관망하고잇든중 데일심에 원고가패소되얏다함을듯고 곳 조선으로건너와 재판합에 자긔에게불리한증언을한사람을 구타하며당시 사실을게재한 신문긔자와시비를한후 자긔의명예를 훼상하엿다는리유로 도리혀 리덕환씨외수인을걸어 명예훼손죄로고소를하얏슴으로 이때까지 판대한태도를취하여오든

리덕환씨 는크게분로하야 다시김형식을걸어 간통죄로고소하매 김형식은 자긔의쳐디가 더욱곤난하게됨으로 다시풀이죽어 형적을일본으로 감추어버렷스나 평양검사 국에서는그후 사실을엄증하야 오든중일권에호출장을 발하여노경에잇는김형식을 붓들다가 지난십오일에 하변취됴한후 그날은집으로돌려보냇스나그이튼날십륙일에 다시리선님을 가리가 취됴한후 그날오후륙시에 드듸여김형식 리선님량인을 구인하얏다는데 이사건이엇더케 진행하여갈는지는반은ㅎ가십으로주목한다더라(평양)

神妙한電氣裝置
간곳마다놀래이는일행
뎐긔회사의세곳을견학 第三回婦人見學團

조선녀자청년회와본사에서주최하는부인견학단은 이제는온장안부인들이 소곱아기다리는 가장흥미잇는날이되여버렷다 데이회에는 팔십사명밧게 안되더니이번데삼회에는 일백일인의 다수에달하엿다 데삼회 부인견학단은 예ㄱ과가티 십팔일오후한시에동대문밧으로 모혀서 동여문안 경성뎐긔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와 구룡산(舊龍山)에잇는와사제조소(瓦斯製造所)발뎐소(發電所)세곳을견학하고오후여섯시에도라왓다

느진가을 의쌀쌀한바람이소름이쏙쏙끼치도록속으로숨여드는 날이언마는 동대문밧에는배여명 부인들의 시간을기다리는얼골들을볼수잇섯다 일행은먼저뎐차과(電車課)로드러갓다 공장의이쪽저쪽에서는 뚝닥뚝딱하는 소리가들리고 사면으로는 뎐차길이거미줄가티 늘려잇다 우리일행은 그 서무파장(庶務課長)김상헌(金尙憲)씨의친절한안내로 공장의 각부분으로부터 뎐차는 장치하는 곳까지일일히구경하엿다

뎐차수효 가일백스물다섯채요보통한채의중량이팔천오백관이나되며 그가격은 한채에보통일만오천원으로부터일만팔ㅆ지요 뎐차길이는 팔십리가량이고 작년도뎐차수입은 일백삼에그수입이 일백륙십일만사천여백칠십팔원이요 직공은 조선인이백명일본인이칠십명인데수효는조선인이만흐나 모도 월급은적다하며 운뎐수와 차장은각각삼백명식인데 다조선사람이라하다우리는 여긔서 또나안내하는김씨를따라 뎐차에올너다 구룡산공장에서 차를내려 개천을건너고 언덕을넘어

와사제조 소로드러갓다 먼저김씨의안내로 소장부뎐(富川)씨를차저본후 공장의각부분을차례로 구경하엿다 이곳에서현재매일평균제조하는와사가삼십삼만사천구백십사 립방척(立方尺)이요와사쓰는 집수효가륙천구백칠십팔호라한다 우리는다시뎐긔서얼마멀리아니가서한강의 푸른물을굽어보는 발뎐소로향하엿다 와사제조소에서 발뎐소ㅆ지 나무그룻을 줄에쉬여공중에달어매고 긔계로 쭐을놀려서 제렬도석탄을 운반하게한는것은 실로우리 부인견학단의만흔흥미를끌엇다

한강의물 을끌려서뎐긔를만드는곳부터 발뎐소 기타공장의각부분이며 뎐긔의분량을계산하고 또각집에 배부하는곳ㅆ지 일일히구경하엿다 작년도하반긔에 뎐등사용수효가오만삼십오만팔천사백칠십 (십칙환산으로) 개라하며 발뎐긔의마-빈(긔계돌리는것)은 일분동안에 삼천ㄱ백번을 돈다는데우리가불때에는 삼천오백번재 돌든때엿다. 때는오후여섯시집집마다밤짓는 검은ㄷ긔가 무럭무럭공중에 써돌때에 우리는유익하고 신긔한견학을 마치고구룡산뎐차종점에서 다시차에 올랏는데 중간에서각각편의한 곳을따라차에서 나려집으로도라갓니다

煙火爆發
부상자수십명

십팔일오후열한시경에일본애지현서가무군 거모뎡(愛知縣西加茂郡擧母町)에잇는 연화제조공장(煙火製造工場)이돌연폭발되여 공장은전소되엿는데 사상자도다수히잇슨모양이며 자세한원인은 조사중인데 판명된부상자는 공장주인 국삼랑(國三郎)(五三)과그의아들종일(宗一)(三五)외의수명이라더라(명고옥뎐보)

飮酒爲事한面長
공금수천원을
횡령소비하고도주

황해도 황주군인교면(黃州郡仁橋面) 리인관(李仁關)(四五)은동군도치면(都府面)서기로 근무한지 팔구년이나된 경력자로재작년십일월경에인교면장으로피명되엿는데정질이부랑하야항상술먹기를 일삼으며 공무에조심을아니하든바 마츰그면 회계원(會計員)이 결원됨을 인하야자

李大鼎等도檢事局에
불일간넘기게될듯하다

인천(仁川)경찰서에서 신한공산정부(新韓共産政府)조선특파원(朝鮮特派員) 리대정(李大鼎)(三三)과리창회(李昌會)(五三)두명이 검거되자 경성시내에서도계속하야 주의자들이 검거되야경인간의 공긔는자못 긴장하여졋섯는데 아직도자세한 내용은알수업스나 권긔두명과경성부서에 잡힌정재달(鄭在達)리성(李聖)두사람역시로령(露領)에잇는 신한공산정부 조선특파원인데 그들의사명은동일하나출발이각각이엇고 또활동구역이달음으로서로련락은 업는듯한데 인천서에서는 거의취됴를 마쳣슴으로불일간검사국으로넘길듯하다더라(인천)

盛況의饑饉音樂
십팔일청년회관에서

녀자교육협회(女子敎育協會)의주최인 긔근동정음악대회(饑饉同情音樂大會)는 예뎡과 가티재작십팔일 하오팔시부터 시내종로 중앙청년회관에 열리엇는데 동포의긔근을렴려하는 남녀령수의 만장의성황을 이루엇스며일부가마친후휴식시간에는긔근구제회위원장 리종린(李鍾麟)씨의 간곡한 연설이 잇섯다 더라(사진은음악회의광경)

荒畑氏訊問
십팔일부터착수

공산당사건(共產黨事件)의련루자로 로서아로부터 일본동경에돌아와서 자수한황뎐한촌(荒畑寒村) 의취됴는십팔일오전열한시부터 동경디방재판소대총(大塚)판사의손으로진행되야산긔(山崎)포시(布施)등 변호사도참석하엿섯는데 황뎐은 일본을버서나서 로국으로 가기까지의경과와 공산당사건에 관한대뎌

二百八十名中毒
도야지국을먹고구십구명위독

동경모스린방직회사(東京毛斯倫紡織會社)의 귀호(龜戶)공장에서는 십륙일저녁밥에 도야지국(豚汁)을 직공에게 주엇든바그국을먹은 녀직공(女職工)등이백팔십명은 중독되야 구십구명은 생명이자못 위독하다더라(동경특뎐)

社會主義를宣傳
警視廳怠業을機會로
동경향도방면에붉은문서

동경경시텽(警視廳)에서는긔밀서류누설(機密書類漏洩)사건이발생한후로 관방(官房)과 형사부(刑事部)사이에분요가일어나서 각계에는태업(怠業)긔분이충만하야 사무에 등한ㄴ주임으로 사회주의자일파에서는 어느곳에 모히여협의한결과 이버를긔회로 크게주의를 선뎐하기로약속하고 위선 향도(向島)방면에붉은문서를 배포한것을 비롯하야 거의시내전부에 붉은문서를 배포한것을 향도경찰서에서지나간십칠일밤에야 겨우 발각하고 즉시 활동을개시하야혐의자수명을 데포취됴 중이라더라(동경뎐보)

運動競技

早稻田優勝
春秋「리구」게전勝

三田稻門野球第二回戰은十八日午後二時半。戶塚球場에서山川(球)谷澤(壘)稻門先攻으로開戰되야三對一로稻門再勝(東京電)

經過=三田軍은豫等三커事力을다하야小野投手를맛고아新田。泰을나세우고稻門은張人氣의谷口。串을세워치훈結果四回初에稻門一點을엇고三田軍五回末에一點을어더同點으로接戰하다가七回에稻門山崎三壘打와有田二壘打로一點을어더三對一로稻門再勝하야早大應援을熱狂케하다

	安	三振	失策
慶	4	9	3
早	6	6	0

早=000110100=3
慶=000010000=1

大邱軍勝利
三對二로長崎敗

長崎高商對全大邱野球第一回戰은十八日午後三時大邱達城公園野球場에서林(球)審判。大邱先攻으로開戰되야三對二로大邱軍이익이엇다는데回數의得點은

邱=100002000=3
長=002000000=2

中學競技經過

全鮮鮮日本人中等學校競技大會의第一日(十八日)『트라크』部에參加한大邱。釜山。大〔邱〕。平壤。龍山。元山。京中等七校의一千五百米競走가잇섯는데優勝은京中軍에歸하얏다고

東西對抗競技

日本東西兩大學에서는今年부터對抗競技를行한다는데種類는野球。弓術。柔道。庭球。劍道。陸上競技(東京電)

虎門事件判決
이십오일로결뎡

호지문사건(虎之門事件)의범인난파대조(難波大助)에 대한판결선도는 사건이그만치 중대한만큼매우신중한태도를취하기위하야 횡뎐(橫田)대심원장 소산(小山)검사총장 이하각 관계법관은 심리를마친후에도 여러차레이나 협의를한결과 마츰내오는이십오일오전구시로결뎡되엿다더라(동경특뎐)

李侯陪殺共犯
리동수는경성에

리완용후(李完用侯)를살해하랴다가미수한사건의련루자로십륙년ㄴ에평양(平壤)에서데포된리동수(李東秀)는불일간경성으로호송되리라더라

時報時間變更
오전륙시를칠시로

종래 경성에서 매일정오와오전여섯시에불든시보긔(時報機)는금이십일부터 오전여섯시에 불든것을 한시간늦이여 오전일곱시에 불게되엿스며 정오에불든것은아모변동이업다더라

高工成績展覽會
이십륙일에개최

경성고등공업학교 (京城高等工業學校)와 경성공업학교(京城工業學校)와 중앙시험소(中央試驗所)에서는 래이십륙일(일요)오전구시부터 오후다섯시까지 해마다 켜례에의하야 련합전람회(聯合展覽會)를열고 생도의실업상태와기타의 설비를 관람케한다는데 생도의성적품과 시험품(試驗品)은 미리 매약(賣約)을할터이오기타여흥으로활동사진, 씨름등이잇다더라

第三回交通調查

경성부에서는 금이십일에 부내의데삼회 교통량됴사(第三回交通量調査)를시행할터인데 이번삼회로써교통량조사는전부뭇을막으리라더라

愛潮社活動寫眞
이십사일부터연사

시내인사동(仁寺洞)일백십구번디에잇는애조사(愛潮社)에서는창간호를 금월하순경에 발행케되얏슴으로 이를축하하기 위하야 애조사주최로 이미일보각디에서 대대뎍환영을밧든 유명한서양사진십오권을 준비하여가지고 오는이십사일 오후일곱시부터 경성일보사옷층에서 상장할터이라는데 입장료는 보통칠십전、오십전、사십전이오 학생권은오십전、사십전이라더라

他殺인가自殺인가
의문의일녀시톄

지난십이일 부산부내대신동(大新洞)공립소에 나히이십세밧게되지아니한 일본녀자한명이 무참히죽은것을 발견하엿는데 아모것도 가진것은업고 죽은지도여러시간이 지난모양인바 죽은원인은 자살인지 타살(他殺)인지를알수업서 부산부경찰의(警察醫)가 해부하기로하엿다더라(부산)

醉漢이強盜
탈십전을빼슨자

일본덕도현(德島縣)출생으로현재부산(釜山)택산형뎨상회(澤山兄弟商會)의뎜원인 산구무길(山口茂吉)(三○)은 지난십삼일오전한시경에 술이만취되여 부내록뎡(綠町)이뎡목 복뎐옥(福田屋)압헤서 지나가든사람을무고히붓잡고 폭행하는것을 지나가든 형사가발견하고 본서로치장에가두고 취됴한결과 지난십이일 오후여덜시에대정공원(大正公園) 에서 지나가든부내초장뎡(草場町)삼뎡목 김원삼(金元三)(三七)을붓잡고 위협한후그아이가각ㄱ밤ㄴ장사를하느라고가지고잇든 돈팔십전을강탈하고도주한범인으로도 판명되엿다더라(부산)

金釵를強奪
이의동거리에서

시내숭일동(崇一洞)삼십이번디에사는 김성녀(金姓女)(三)는재작십팔일 하오여덜시경에 경성사대제의 방행팀구경을 할차로 시내인의동(仁義洞) 전매국부근도로에섯든중 엇더한로동자와가튼ㄴ사가나타나며머리에ㅁ진금비녀를빼여가지고 도주하얏는데 소관 동대문서에서는목하범인을엄탐중이라더라

京城公立商校
금월락성식거행

경성 공립상업학교(京城公立商業學校)에서는 그동안동네문밧게교사를 건축중이더니 이미락성되얏슴으로 금이십일 오후두시에 그학교안에서 성대한락성식을거행한다더라

◇와사제조소를구경하는부인견학단

종명자

▲조선일보데삼면에『멍텅구리헛물켜기』라는그림이야기가매일나게된후로경성시내에서는특히『멍텅구리』라는말을듯게되얏는데 ▲작일오후 한시경에는『시내의독자』라는일홈으로『오날나오는신문에 멍텅구리가무슨 창피를보겟느냐』는문뎨로 내기를 걸엇스니 일러달라는편협을만커는 멍텅구리도 커욱이 위안이 되겟지▲십팔일 오후한시경에 조선일보의 부인견학단 일행이 동대문밧에 이르자그곳 파출소순사나으리한분이가장렴리한드시『여긔는구경이아와 커라가』하고부르지더라나 ▲권학단원의 한부인은독커순사는신문도안보는가, 참멍텅구리로군! 우리가왓사왓사구경군인줄로아

病魔에呻吟하시는人士에可히驚嘆할만한臨床의最新發明되엿스며우리獨逸에 ……

◎獨逸補血丸 原名 헤모오디 一月分五圓 半月分三圓
▼適應 生血補強、身弱疲勞、食血萎黃、手足厥冷、消化不良等症

◎獨逸政府專賣特許 獨逸淋疾丸 原名 하이데산(一週日分)一瓶二圓
▲適應 急慢性淋疾、淋毒性膀胱炎、睾丸炎等諸症、神效

◎獨逸內服六〇六 原名 메칼 一瓶三圓五十錢
▲適應 第一二三期梅毒、下疳其他梅毒性諸症

◎獨逸胃病一笑丸 原名 스토마치쿰 一瓶二圓五十錢
▲適應 新舊積滯、年久胃病、胃痛、吐瀉、胃弱、食慾不振、胃痙、生痞等奇効無雙

◎獨逸婦人百病丸 原名 세단쓰베케라틴 一瓶四圓
▲適應 月經不調赤白帶下、月經時下腹痛、子宮冷虛、一切婦人病에其効如神

◎獨逸壯陽丸 原名 요힘베 一月分九圓 半月分五圓
▲適應 補陰、補陽陰莖勃起力減退、陰萎、早漏遺精、其他生殖機能障碍等에可驚할如果를奏함

◎獨逸偏頭痛丸 原名 피라미돈 一瓶二圓
▲適應 年久偏頭痛、三叉神經痛、坐骨神經痛症

◎獨逸補腦丸 原名 색룡찬 一瓶三圓五十錢
▲適應 補腦、安神、平肝、滋陰、善養神經一切神經衰弱、頭暈、心跳怔忡健忘、失眠不寐諸症特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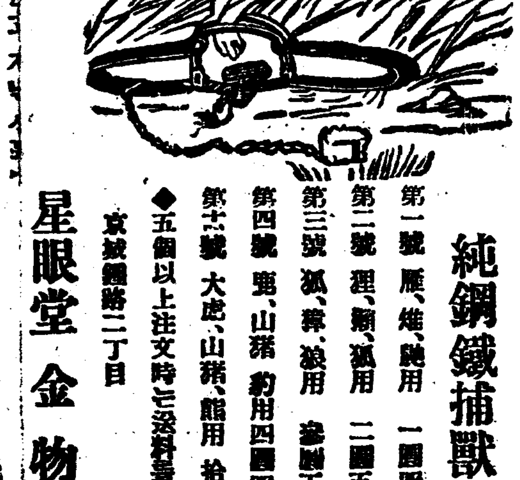
(其他諸藥品具備)商報無代進呈
輸入元 獨逸藥品洋行 京城南大門通一丁目二
發賣元 玉田洋行 電話光化門六四六番 振替京城五二一七番

腎經衰弱인君子와 子宮不實인淑女여
小金額으로四時를勿論하고百發百中으로速效되난自宅療法을無代進呈하오니二錢郵票를添付하야至急히照會하시오
右特約店을願하난諸氏난三錢切手를封入하야照會하시오
京城西大門外孔德里一七〇 德恒泰藥業部

技術員大募集
本公司에서將來獨立開業 又는就職志望人에게對하야左記科程을 一個月間 實習 敎授키爲하야 技術員을大募集하오니有意하시난 僉彦은 大正十三年十月二十日 內로二錢郵券添付申込하시면 規程書를 送呈하겟삽나이다
科程 乾電池 蓄電池 電液各種製造法 無線電話及機械構成法 各種人造染料配合製造法、電液廢物利用法
但本公司營業에對하야同業又는特約店出資를希望하시난人은二錢郵券封入請求하시면規約書를送呈함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二番地 鷄林電燈公司

論山旭町 大東醫院 本館 醫學士 吳世南

米國製 純鋼鐵捕獸器
第一號 鼠、雉、鵲用 一圓四十錢
第二號 狸、獺、狐用 二圓五十錢
第三號 狐、猝、狼用 三圓五十錢
第四號 虎、山猪 豹用 四圓四十錢
第五號 大虎、山猪、熊用 拾圓也
◆五個以上注文時는送料當店負擔◆
京城鍾路二丁目 星眼堂金物部



社說

朝鮮總督府의 財政狀態와 朝鮮民衆의 生活

一

日本加藤內閣이 標榜한 三大政綱中에 한아인 行政及財政의 整理案은 마츰내 去十三日의 內閣閣議를 經하야 總合一億五千百五十一萬圓의 削減을 斷行하얏다 한다

이에 對하야 內閣의 聲明한 바를 드른則 今番의 整理가 以上 一億五千餘萬圓의 削減에 그친 것은 여러가지 周圍의 情勢으로 보아 不得已한 것이오 決코 現內閣의 本意가 아닌 것을 言外에 表明하얏다 한다 元來加藤內閣이 當初에 聲明한 것으로 말하면 日本의 來年度總豫算額十五億圓餘에 對하야 約二億五千餘萬圓을 整理하겟다 하얏슨즉 今番의 一億五千餘萬圓과는 實로 一億圓內外의 大差가 잇는 것이다

그럼으로 現加藤內閣의 行財政整理案이 이와 가티 言實이 不同한 以上 內閣의 體面으로 보아서도 決코 今番의 整理案을 滿足치 안한다고 自認한 것이 어니와 더욱히 一般國內의 輿論으로써 보면 彼等皆現加藤內閣의 不撤底한 態度를 糾彈치 안함이 업다 엇던 今番加藤內閣의 整理案은 所謂鵝山鳴動에 鼠一尾라는 冷評이 또한 怪異치 안한 가한다

二

그러면 以上整理案中에 朝鮮總督府特別會計는 果然 얼마나 한 程度의 影響을 밧게 되얏는지는 아즉 確定的으로 公表한 것이 업다 다만 日本大藏省當局과 朝鮮總督府當局과는 去番下岡氏의 渡東으로 因하야 그 具體的 折衷을 進行中이라 하는데 그 交涉의 經過로써 推測하건대 大略 一千二三百萬圓乃至二千萬圓의 程度로 整理를 斷行케 되리라 하며 또 朝鮮總督府當局者의 言明한 바에 照하야도 總豫算一億四五千萬圓의 約一割인 一千五百萬圓假量은 整理되리라 한다 그리고 朝鮮總督府特別會計中에 日本의 一般會計와 가장 緊切한 關係가 잇는 補給金問題와 또 朝鮮의 事業公債에 代할 借入金合計約二千五百萬圓假量은 從前과 가티 繼續支出되리라 한다 要컨대 朝鮮이라는 特殊地域의 特殊한 事情을 參酌하야 日本國內의 本豫算을 整理하는 것과 가티 一律로 支配키 어렵다는 理由下에서 朝鮮의 補給金問題와 公債에 代할 借入金問題는 艱辛히 그 難關을 免하얏다 한다

三

그러면 以上의 一千五百萬圓假量의 整理計劃으로 말하면 全혀 朝鮮總督府의 豫算支出中에서 人件費와 事務費의 緊縮과 整理를 斷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來年度의 豫算收入에 官業과 租稅의 歲入減을 約一千萬圓程度로 計上한다 한즉 結局朝鮮總督府來年度豫算額은 今年度에 比하야 二千五百萬圓假量의 減少라 하는 것이다 이와 가티 朝鮮總督府의 豫算이 例年에 比하야 約一割六分餘의 減少는 不得已하게 되는 點으로 보면 朝鮮總督府當局者의 無爲無能을 財政의 窮乏에 每每히 轉嫁하는 例의 常套的 口實이 더욱 더욱 增長할 반한 好個의 材料를 供케 한 것이다 보라 來年度豫算이 아즉 確定치도 못한 今日에 잇서 行財整理의 結果로 朝鮮教育費의 國庫補助減을 濫藉하야 教育施設의 縮少와 學校費徵收의 增加를 이미 公然하게 聲明한 京城府當局者의 態度가 斯般의 消息을 무엇보다도 雄辯으로 說明하는 바이어 늬가

勿論 우리는 朝鮮總督府의 財政狀態가 顯著하게 枯渴한 것을 모르는 바아니다 曰 日本의 國庫에서 年年히 支給하는 一千五百萬圓內外의 補給金과 또 一千萬圓內外의 公債을 發行하야 겨우 그 收支의 均衡을 맛추는 것은 다시 말할 것 업시 이 만큼 朝鮮의 財政狀態가 貧弱한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그러나 一方으로 朝鮮의 一千八百萬民衆의 生活財源으로 말하면 그 보다 더 떼 十倍百倍의 窮乏한 悲情에 陷하야 잇는 것이 朝鮮總督府의 耳目으로 觀察하드래도 다시 否認할 餘地가 업슬 것은 茲에 吾人의 贅說할 바 아니다 그러면 結局問題의 關鍵點은 무엇인가 하면 朝鮮總督府의 財政狀態이나 또는 朝鮮民衆의 私經濟이나 다 가티 窮乏하기는 맛창가지요 萬一 破産이라는 最後의 途程에 이르게 된다하면 다만 時期의 早晚과 先後가 잇슬 뿐이다 그러면 窮鳥의 入懷를 怒치는 데 울리지 안케 엄는다는 것이 苛歛誅求의 信條라 하드래도 이미 朝鮮人은 痛切하게 悲鳴을 發하지가 오래인 今日에 잇서 이 以上의 剝取는 다만 窮鳥를 殺하는 外에 他途가 업다 아! 一千五百萬圓補給金의 香餌下에 얼마나 만흔 大小死魚의 犧牲이 잇는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업는 것이다

멍텅구리 헛물켜기 (8) 자살

(一) 멍텅이가 한강텰교로 죽으러갓다가 (二) 자동차로 지나가는 옥매를 보고 (三) 정신업시 쫏차가다가 (四) 엇어몰어진 다리바닥에 빠졋다

海州懿貞女校 校長排斥 聲討會를 열러

海州私立懿貞女學校와 同幼稚園教育委員一同은 同校長裴義禮氏의 不法한 行動이 잇다하야 五個條의 理由를 들어 不信任案을 海州南本町、南旭町教會에 提出하엿슴으로 前記兩教會職員들은 協議한 後 聲討하기로 決議하고 委員九人을 選定하야 善後策을 講究中인데 不日間 裴義禮氏 聲討會를 開催하리라더라

聲討委員 金光國、朴季和、黃鶴巢、黃致憲、吳仁明、田喜哲、吳龍煥、吳義明、崔斗鉉(海州)

仁川慈善會 一般이 改善을 期待

仁川慈善會는 會長丁致國氏가 作故한 바 勿論 副會長以下 任員이 잇슴으로 어느 期間까지는 會務를 代理케 하는 것도 無妨하겟스나 副會長以下 各任員은 이미 辭表를 提出하엿다 하고 何等 干涉을 아니 함으로 結局은 全任員을 改選치 아니하면 안되겟스며 一般은 會規도 改正할 必要가 잇다고 하는데 此에 對하야 監督의 地位에 잇는 大森仁川署長은 말하되 任員을 改選하기 前에는 모든 것을 내가 保管하겟소 그러고 方今 收支를 決算中이니 어느 程度外지 文簿를 맑힌 後 後任會長에게 引繼할 作定이오 라고 말하는데 이 會問題는 府民一般의 協力하야 今般機會를 利用하야 遺憾업시 完全하게 改造하기를 一般은 期待한다더라(仁川)

清進共進會 褒賞授與式

清津共進會褒賞授與式은 去十七日午前十時부터 第二會場演藝館에 開하얏는대 官民有志出品人等六百餘名이 出席하얏스며 審查長三山博士의 審查報告와 講評이 잇슨 後 一等으로부터 五等外지 入賞者에게 賞狀을 授與하얏는데 當選者의 氏名은 如左하더라

一等 會寧部 石廣灣 粟外二十八點
二等 明川郡 黃用革 白米外七十五點
三等百五十五名 四等二百三十名 五等四百三十五名(清津)

山積하벼를보고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要 住所氏名明記

啄木鳥

◇朝鮮에서 凶年이 나 아니나면 그 해의 農作物로 足히 그 해의 饑饉는 免할 수 잇다 昨年에도 凶作이엿슴으로 시골 農村에서는 滿洲粟을 食하야 艱辛히 延命하야 왓다 今年이나 僥倖히 豊年이 지면 窮은 父母와 어린 子弟를 수리지 아니하도록 지나라 하고 주린 배를 부여잡고 비지땀을 흘리며 서 農務에 애를 썻다 업치기에 덥치기로 또 昨年以上의 凶年을 當한 애 이제는 꼭 죽엇지 살 가망이 업다고 몰울 못한다

◇平均三割減收라 하면 每戶에 三四個月糧米가 떨린 것인데 이제부터 三四個月糧米를 豫備한다 하면 그다지 問題될 것이 업지만은 有産者의 催稅에 몰린 外닭인지 沒金에 몰린 外닭인지 벼를 집에 되려 보지도 못하고 들에서 全部 賣渡한다

◇이 벼가 朝鮮內에서 循環하는 것인가 아니라 外國으로 全혀 輸出된다 한다 그러면 비지땀을 흘리면서 지은 우리의 손으로는 한알(一粒)도 다시 오지 못할 것은 定한 일이다

◇外國에서는 이와 가티 初가을부터 糧米를 購入하는데 그와 反對로 朝鮮에서는 갓득이나 반치 農根도 못되는 것을 가지고 初가을부터 파라먹으니 將次엇지하라는가

◇現今各驛에 山가티 싸인 벼가 나되지 아니할는지 아모리 滿洲粟이 可히 온다 할지라도 金錢恐慌의 影響으로 滿洲粟防止가 極度에 達한 朝鮮人으로 엇지할 수 잇스랴

◇外國에서 朝鮮으로 온 것이라 하면 먹지 아니하야도 배가 불을 뜻하다 吾人은 別말할 것 업시 饑饉救濟會의 良策만 바랄 뿐(梧川粟園生)

教育品展覽會

黃海道教育會主催로 去十七日부터 十九日外지 三日間 海州第一公立普通學校內에서 教育品展覽會를 開催하엿는데 陳列品은 如左하더라

海州、甕津、延白三郡各學校教育成績品

圖書、書方、綴方、裁縫品、農業生産品、手工及手藝品、道內各學校成績品、朝鮮內教育品、日本教育品、教育參考品、機械、標本其他教育資料一切理化學實驗(海州)

玉振校를爲하야 學校組合組織

慶南河東郡玉東面正水里에 在한 私立玉振學校는 基本財産問題로 校門을 닷게 되엿다가 有志諸氏의 熱誠으로 僅僅繼續하야 오는 中이나 維持方針이 困難함으로 同校校長以下 職員一同은 去陰九月九日에 同校組合을 組織하기 爲하야 創立總會를 開催하엿다 더라(河東)

元山大豆輸出

十八日間에 萬石

既報와 如히 元山新大豆의 日本輸出은 非常한 形勢로 益益繁昌中이 데 當地吉田運輸會社의 取扱高는 九月末以來十八日外지 一萬石에 達하엿다 하며 其發送地는 敦賀、關門、阪神地方이라더라(元山)

釜山度器檢查

釜山府 度量衡器의 集合檢查는 去十五日부터 二十五日外지 太田技手가 出張하야 檢查한다는데 度器를 檢定命令에 違하야 受檢器物을 檢定所에 가저오면 調查하겟스나 아모 理由업시 違反하면 處罰할 터이라는 바 一般所有者는 注意업이 조켓다 하며 아직 남은 檢查場所와 日割은 如左

十八日 國際通停車場派出所管內 ▲十九日 本町派出所同管內 ▲二十日 寶來舘、幸町派出所同管內 ▲二十一日 富平町派出所同管內 ▲二十二日 寶水町派出所同管內 ▲二十三日 武德舘土城町派出所、富民洞派出所管內 ▲二十四日 牧島驛座牧島派出所管內 ▲二十五日 木町派出所(釜山)

音樂을듯고

◇音樂會를 갓섯다 場內에는 紳士淑女도 잇고 男女學生도 잇고 內外國人도 잇섯다

◇모든 演奏는 大概 再請을 밧지간한 盛況이엇다 그러나 그 再請하는 態度가 正말 다시 한番 듯고 십허하는 것도 잇고 처음에는 작란삼아하는 것이 두도 잇다 작란삼아 하다가 나종에는 自己固執세우기 爲하야 고승스럽게 손벽을 친다

◇이러한 것도 이 여러 사람에게 不快한 늣김을 주는 원도 만커니와 甚하면 소리를 질으는나 쉬쉬 배암쏫는 소리를 한다 궁광거리며 발을 굴은다 그리하여서 場內의 空氣를 騷擾케 한다

◇大體 그네들은 音樂을 들으러 왓는지 音樂을 妨害하라 왓는지가 疑問이엇다 妨害할 뜻으로 왓다 하면 몰으겟다 만은 들으러 왓다 하면 좀 더 조용하엿스면 십헛다(一聽衆)

大東講習曙光

寶州郡實村面鳳峴里에 잇는 大東講習所는 該里有志文鴻圭氏의 經營으로 旣히 設立되얏스며 辯護士文錫圭氏와 現京都帝大在學中인 文稷圭兩氏가 每年 各百餘圓式 寄附金을 내이어 압흐로 經營이 有望하다더라(寶州)

洪城副業展覽

忠淸南道農會主催로 十九二十兩日間을 洪城邑內에 副業品展覽會를 開催하고 洪城郡內의 副業生産品을 多數陳列하야 一般民衆에게 副業獎勵의 趣旨와 觀念을 皷吹하고 餘興으로 京城一流妓生의 手踊이 잇스며 脚戲、農樂、活動寫眞等을 映寫하야 洪城으로 하야금 初有의 大盛況을 呈한 바 脚戲의 賞品은 如左하다더라

一等牛一頭 二等豚一頭 三等以下에도 多數賞品 (禮山)

群山巡劇計劃

京城朝鮮新派演劇團에서는 寫眞을 가지고 當地에 到着하야 群山靑年會組織의 共同住宅期成會를 爲하야 三日間興行하얏다 함은 既報한 바어니와 新派劇團의 金光燮氏는 寫

日記가歷史資料

去月末以來北間島國境方面에서 史料調查中이던 總督府稻葉君山氏는 今回慶源郡東源面에서 金寬容氏의 日記一切을 發見하엿는데 其文書의 價值는 著名한 北關誌에 不讓할 뿐 아니라 咸北의 唯一한 歷史資料가 되리라더라(元山)

振興會의 好成績

忠南大田郡柳川面三川里愈昌穆氏는 今年旱災로 因하야 一般貧民과 勞働者의 活路가 업슴을 遺憾으로 생각하고 잇든 中에 月前부터 振興會를 開設하고 自己의 財産을 捐出하면서 貧民의 副業品을 獎勵하고 또는 勞働夜學講習을 시우고 兒童教育을 實行한다더라(大田)

沃溝稻作審查

沃溝郡稻作多收穫競進會本年審查는 十月二十日廿一日의 兩日에 할 터이며 出品點數는 四十九點이라는데 本年은 正租價가 빗사서 秋收를 急히 하는 農家가 多함으로 此를 防止키 極力으로 此에 防止한다 하며 一般의 秋收는 二十日頃으로부터 月末頃外지에 終了하리라더라(群山)

傳書鳩來群

全北警察部에서는 過般 水産試驗場에 傳書鳩讓受를 申托한 바 近日에 雛鳩五首를 送付한다는 通知가 잇다는데 이것은 群山과 於靑島間의 警察通信에 使用한다더라(群山)

●高麗醫院開業 開城南城病院에서 多年勤務하다가 米洲에 가서 外科及産婦人科를 研究하고 歸來한 許鏞氏는 今般當地松都醫院跡에 醫院을 開業하엿다고(開城)

◇地方運動競技◇

▲仁普秋季運動盛況 仁川公立普通學校에서는 既報와 如히 지난 十七日午前八時半부터 山根町公設運動場에서 校舍新築落成記念秋季大運動會를 開하엿는데 午前二十九種午後三十種의 競技로 大盛況을 呈하얏다고(仁川)

▲江景對群山庭球戰 忠南江景庭球部와 群山鐵江國競友俱樂部庭球部에서는 去十七日午前九時부터 江景韓一銀行『코-트』에서 庭球戰을 開催하엿는데 優勝은 群山庭球團에 歸하엿다고(江景)

▲知禮普校秋季運動 慶北金泉郡知禮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十七日에 該校校庭에서 秋季大運動會를 開催하얏다고(金泉)

▲岳陽普校秋季運動 慶南河東郡岳陽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十六日에 秋期大運動會를 盛大히 擧行하엿다고(河東)

▲醴泉公普秋期運動 醴泉公立普通學校에서는 慶常小學校와 聯合하야 秋季運動會를 開催한다 함은 既報한 바어니와 豫定인 去十六日午前十時南本洞堤立地沙場에서 盛大히 開催하엿더고(醴泉)

▲堤川公普秋季運動 堤川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十七日에 運動會를 開催한다 함은 既報한 바어니와 大盛況裡에 마치엇다고(堤川)

▲開城商友會運動 開城商友會에서는 來二十六日에 當地鐵道公園에서 市民運動會를 開催한다는데 科目은 마라손 競走、自轉車競走外數十種이 有하다 하며 參加選手는 미리 同會事務室로 申込하기를 바란다고(開城)

▲開城南部主日運動 開城南部幼年主日學校에서는 去十七日에 第二回秋期運動會를 元町孔子廟에서 舉行하엿는데 幼年男女의 舞蹈及數十種의 趣味잇는 遊戲와 競技가 잇서 大盛況을 이루엇다고(開城)

◇青年其他集會◇

▲勞友會第一總會 釜山勞友會는 去十二日午後五時에 釜山西部青年會舘에서 定期總會를 開하엿는데 三百餘名 勞働服을 着한 會員이 出席하야 兪東濬氏의 司會로 議事를 進行하고 任員을 如左히 補選하얏다고

專務幹事 兪東濬 常務幹事 金根述 金斗淳 金宗尙 李基三 調理部 金仁順 鄭斗華 李三植 陳泰浩 文復現 書記 朴時英 朴龍九 財務 車學洛 第一部長 文永鳳 第二部長 朴元錄 第三部長 朴漬 第四部長 李聖玉 第五部長 權海松 第六部長 金井五 第七部長 金應守 第八部長 李三植 第九部長 鄭華 第十部長 姜士彥 第十一部長 韓宇根(釜山)

▲豐山小作人總會 慶北安東郡豐山小作人會에서는 去十四日午後一時에 豐山市場에서 秋期定期總會를 開하고 各部의 報告와 祝賀文朗讀이 잇슨 後 小作料變更의 件에 對하야 秋期作物은 田四割以內 畓三割以內로 하되 畓에 對하야 春期作物分配는 慣例가 업는 地方은 前例에 依하기로 하고 朝鮮勞農總同盟에 加盟할 件의 承認의 件과 執行委員五人增選의 件을 決議하고 小作權還收의 件과 災害對策의 件은 執行委員에 一任하기로 하얏는데 改選된 委員은 如左하다고

李相龍、申泰雨、權永浩、李會昇、權大亨、金春根、金尙圭、金重東、李守宗、權丙南、李準應、金朝東、韓演成、李萬楨、金昌秀、崔榮洙、崔炳五、李雨昊、金彰燮、李準泰、金鉉鎭、安元錫、朱相夏、李湍求、金洛漢、金在欄、趙纘洛、金芝鉉、金彰燮、李泰熙、李會輯

▲仁川엡웟講演盛況 仁川엡웟靑年會主催思想講演會는 旣報와 如히 十七日下午八時半부터 李淑卿女史는 『新時代의 要求』에 應하야 盧正一氏는 『吾人의 活路』라는 題下에 各其熱辯을 吐하엿는데 聽衆이 多數하야 盛況을 呈하엿다고(仁川)

▲馬山靑年定期總會 馬山靑年會에서 去十二日에 開會하라던 第一回定期總會는 不得已한 事情으로 因하야 去十七日午後九時에 馬山俱樂部會舘內에서 執行委員長李廷謨氏의 司會로 開하고 各部報告와 張在輪氏의 山王大神官臨省者韓大槐에게 對한 質問顚末報告와 金植氏의 馬山俱樂部에 對한 交涉顚末報告가 잇슨 後 朝鮮儀禮救護會의 組織의 件과 山王大神臨對에 對하야 正하얏스며 宣傳文과 講演會等을 開催하기로 하얏다고(馬山)

▲河東勞農會聯合會 慶南河東勞農聯合會에서는 去十六日午後三時에 河東商務會舘內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얏는데 花開、赤良、河東、橫川、北川、辰橋、加玉七個勞農會가 參加하얏스며 常務執行委員李元烈氏의 開會辭가 잇슨 後에 經過報告와 收支報告가 잇고 常務執行委員을 左와 如히 選舉하얏다고

金榮斗 金應鐸 鄭守圭 金奉十 車斗用 金大淳 金大圭 吳相麟 南相桂 (河東)

▲赤良、花開、勞農總會 慶南河東郡赤良勞農會에서는 面錦江面花開勞農會에서는 同面塔里에서 十九日에 臨時總會를 開催한다고(河東)

▲牧溪少年團月例會 忠北忠州郡嚴政面牧溪少年團에서는 去十三日午後九時에 그 臨時事務所內에서 第二回月例會를 열고 任員을 左記와 如히 改選하얏다고

會長 朱泓曉、幹事 姜允南、卞東壽、朱億成、裴永釗、財務 金允植、書記 金氏承、文藝部 李基善、音樂部 朱元鎬、體育部 尹鍾學(忠州)

▲勞農聯合巡回講演 慶南河東勞農聯合會에서는 秋期收穫時를 當하야 一般會員에게 覺醒을 주기爲하야 全郡巡回講演團을 組織하엿는데 區域과 演士의 氏名은 如左하다고

區域	演士	區域	演士
花開面	李元烈	河東面	金應鐸
赤良面	金榮斗	橫川面	辛龍圭
北川面	尹炳斗	加玉面	文永相
辰橋面	姜已燮		

(河東)

▲醴泉靑年幹部會 醴泉靑年會에서는 去十七日午後八時에 佛敎唯一學院內에서 第五回幹部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고

一、大昌學院에 關한 件
一、會舘建築에 關한 件
一、舊債務에 關한 件
一、其他重要事項(醴泉)

◇地方人事消息◇

▲本社仁川支局長朴昌漢氏慈堂韓氏는 回甲宴을 二十三日自宅에 張한다고(仁川)

▲公州警察署長 長澤乙松氏는 家事에 依하야 退官하고 忠南警察官講習所長으로 잇던 小澤昇氏가 被任(公州)

그젼날밤 (72)

루르게네프 作 趙明熙 譯

『에레나』는 그의얼골을쳐다보고 자긔자신도이저바릴디경으로 『베르세네프』의눈치를살펴보며 말하지안는가운데 무엇을무르는표정으로뭇는다。『베르세네프』가길보(吉報)를가저옴을 대번에알고빙그레웃음을띄어 저편사나희는고개를끗덕하고드러온다。『에레나』는또차나가마첫다。

『이제마음을노케되엿슴니다』하고『베르세네프』는가만히말을내이며『이제는아주병을노앗스닛가、한일주일이내로는확실히쾌복이되겟지요』

『에레나』는 머리우에무슨무거운것을들쳐쓰웟던것을벗서내는것가티결분이여지며、팔을떼벌린채그대로아모대답도업다 다만입술만발발썰하며 두볼은붉으스레하여진다。『베르세네프』는안나『엽흐로』가서 이약이를시작한다。그동안에『에레나』는 자긔방으로도라와 무릅을꿀고업대려 오래도록긔도를드리엇다。깃부고도감사한눈물이두볼에흘러내린다。그는마음을놓과도히써서 몸이피곤하기까지늦으럿다。그래서그는그만벼개우에쓰러지며 나지막한목소리로『베르세네프씨 참미안해』하고주얼거리며、불이고눈썹이고눈물에저진채 그대로잠이솔――들고마럿다。우는것이고잠자는것이고 그에게는무던히오래간만의일이엇다。

◇ ◇

『베르세네프』의한말이란것은진작으로만한말이오、실상『인사로프』의병세가되험안디경은지내엿스나원긔회복外지는그러케쉽사리될것이아니엿다。의사의말을드르면명근이깁히박히엿던것이라고한다。좌우간지금은병상을떠나 방안에서왓다갓다할수는잇게되엿다『베르세네프』도 자긔딴으로도라가잇다。그리하면서매일차저와보고가며『에레나』에게도여전히알려준다。

『인사로프』는『에레나』에게편지하지할것은업다고생각하며、다만『베르세네프』와이약이할때에 그의말이각금각금닙에올를따름이엇다。『에레나』도또한편지를하지안코 다만자긔가가게될께만기다리고잇다。『베르세네프』는『인사로프』를대할째에다른이약이는하면서도『에레나』가그러려대애를타서지나엿단말은일부러시침을뚝떼고 일절하지를안는다。그는그런낫을속으로는하고십허하면서도 입으로는내지를아니하엿다。

엇던날『베르세네프』는깁분낫을하여가지고『에레나』에게로와서하는말이、의사가하는말이『인사로프』가인제는구은고기가튼것을먹어도죠타고하는것을보아도 오래지안아밧것출입을할것갓다고한다。그말을드른『에레나』는아래로 내려깐눈으로저편에노힌책상을 우둑허니바라보며 무슨생각을하는것갓더니

『내가무슨말을하라고생각하엿는지알으시겟서요』한다。

『베르세네프』는좀황당한듯이『에레나』를쳐다보며 저쪽마음을짐작하는듯이 엽흐로고개를돌리며『아마그사내를만나고십다는말슴이지요』하고대답한다。

『에레나』는얼골이붉어지며 잘알아드를수도업슬만치『네、』하고말한다。

『그럿슴닛가、그만한일을가지고무엇을그러케하실게잇단말슴이요 당신에서는외레 가실뿐이아니야요』하고그는대답하면서도 가슴속이몹시벌떡어려짐을쉬닷겟다。

『당신에서하시는말슴은내가벌서도 간일이잇지아니하냐고하시는것이지마는......나는넷건지......그런데 요새그집에손들이만히드나들지안어요』

『그만한일이야 무엇......아모리하기로......』하고『베르세네프』는엽끝을뒤로떠돌리며마는、친구의병거정을하여외문편지를한다는데야 누가올치안타고할리가잇나요。그것은조금도상관업지요。그래서어느날어느시에가겟노라고긔별하면그만이아니야요』

『그런날만하고요......』하고『에레나』는나지막한목소리로말한다。

『편지를써서나를주시구려。갓다전할터이니』

『무엇、그럴것은업서요。그런데내 당신에청할게잇서요。네。그러시지마서요。네、저―내일당신께서그이잇는데 하로동안만조가서지마려주서요』

『베르세네프』는이로입술을짓고잇더니『아、그럿슴닛다、진작하겟슴니다、그러면그러케하지요』

그는이러케말하고나서 얼등어멧마대더짓거리고나서나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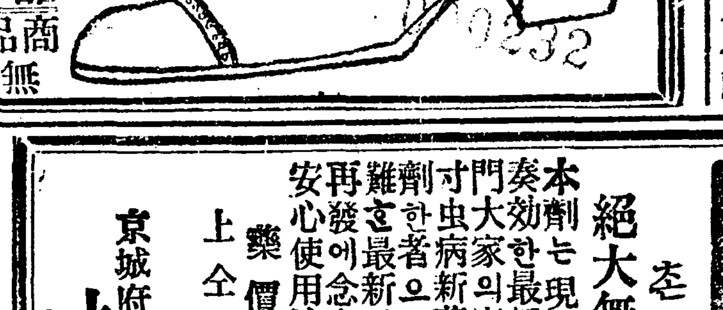
『왓은실상그러케되는것이더좌화그래 더잘된일이야』하고그는자긔집을향하고 오는길에혼자하는말이엇다。그는여러가지생각이가슴속에왓다갓다한다。『내가무슨그런일을인제처음야 서낫의불건이도리혀잘된일이야。발되는것이도리혀잘된것을내가무엇하러 마음을괴롭게굴며돈단말인가。나는조곰도잘못하엿단생각은업는데、나는내양심이명령하는대로만꼭시행하엿는대......、좌우간인제는만사가다끗이나고마럿다。그두사람이하고십흔대로하게내어던지지。도라가신아버지께서 내게이런말슴을하섯겟다『우리는지나던지무슨귀한진에 태어난사람도아니요、또한팔자도찰란사람들이아니야、그러라고무슨운명이란것에고개숙이고순종만할것은아니란말이야、어디까지던지우리는힘쓰고힘써서 내일을내가하고 내운명을내가열어나가야지、우리란사람은한일이다、그만한사람이 사람밧게는 더되지못한단말이지。네생각해보아라 비유하여말하면 우리가만일가죽으로맨든행주치마를입고 어둠침침한공장안에안저서 뜻한다할것가트면、저―떠스하고밝은햇빗이다른사람에게만비치고 우리에게는비치지안는다고 해보자、그러고보면우리의생애란것이 꺽괴롭기도하고 오직지도못하겟지그러나그야엇지할수잇니 그는그대로질거워하고 참어나가면나종에 다 갑흠이오는법이다』하고말슴하셧지마는 참올흔말슴이야하고、이外지생각하여보앗다。

社告

一、支局의名稱 高陽支局
二、支局의位置 京城府麻浦洞二〇一
三、支局員의職氏名
支局長 尹常燮
總務兼記者 姜天熙
顧問 金溶德
顧問 尹永培

右와如히支局을設置하얏사오니管內의愛讀諸位는新聞請求及廣告申托一切을直接交涉하시압소서

朝鮮日報社白



洋靴

現代의要求에適한 理想的이오 且實用品되는

京城鍾路二丁目【비고다公園急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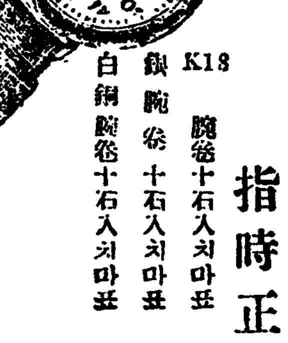
青年洋靴店

商品目錄無代進呈

【地方代金引換送金】

寫字生 男女募集 門宅簡易 執筆遠近 不問收入 確實高尙 地方希望者好適詳細社則無代進呈

大阪南區天王寺驛 電話南七九七三番 三友社



新品 多數輸着 瑞西特製 指時正確

K18 腕卷十石入치마표 二十七圓
銀 腕卷十石入치마표 十五圓
白銅 腕卷十石入치마표 十三圓
十八金片十石入치마표 二十五圓
銀片側十石入치마표 十三圓
白銅片十石入치마표 十一圓

大元堂時計舖 京城府鐘路二丁目四十番地 振替京城一六九番

絕大無二한寸虫神藥 촌충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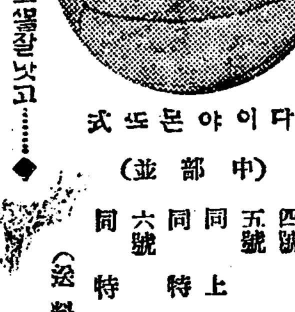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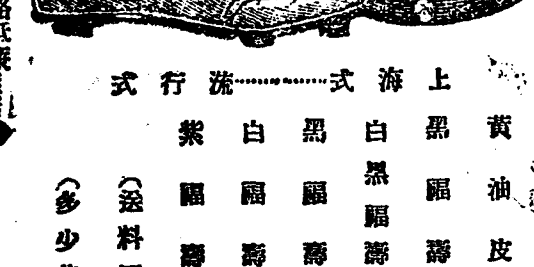
寸虫藥

本劑는現今東西洋醫學界에서積年經驗에奏効한最新處方에基하고又多數한虫病專門大家의實地研鑽을經한特効藥을配伍한寸虫病新藥으로本院에서特別精選하야製劑한者으로其効力이偉大迅速홈이形言키難한最新靈藥이오며또治療法이便易하고再發에念慮가全無하오니寸虫患者諸君은安心使用하시압

藥價 一劑 一圓三十錢
上仝 二劑 二圓六十錢에난 送料金을本院에서負擔홈

京城府仁寺洞二百四番地鐘路里門內

寸虫病專門藥院

全鮮公私立學校及運動團體에用達

蹴球 經驗하고생각낫고

다이야몬드式 (中部並)

三號	幼年用	三圓五十錢
四號		五圓
五號		六圓
同	上品	七圓
同	特品	七圓五十錢
六號		七圓
同	特製	八圓

(送料三十五錢)

蹴球靴 品質조코價格低廉

上海式	黃油皮	六圓五十錢
	黑牌	六圓五十錢
	白黑牌特品	七圓五十錢
	黑牌特品	八圓
	白牌同	八圓
流行式	紫牌同	八圓

(送料四十五錢) (多少先金을要함)

京城府禮智洞二百十五番地

京鄕運動具店同業者에都賣로供給

서울풋볼製造所

振替口座京城九四〇一番

學藝

童話에나타난朝鮮情調(二)

星海

以上에말한과가티우리나라童話는 詠歎的인哀傷이 非調를읍우엇다할도 童話를 組織的으로文學의價値를 附與하야이것을 具體的으로 硏究한結果로 云云하것은 勿論아님니다 다만自身의 幼稚時에 童話에서어든바 感激이나 또는其他의氣分을 長成한今日에 여러가지黙徵한記憶中에서 봄려일을길베에비로소어든바結論입니다 童話自體도 아즉組織的으로 그系統을 硏究된바이업슴으로 우리가幼稚時에 할머니이나 이웃집老婆의 무릅우에서 엇골늘치어더보면듯던모든童話가 반드시우리民族的所有이지 或은外國이나他民族에게서 傳來한것인지는 알수업스나 어쩃든이것이우리民族의先祖때부터 입에서입으로傳하여온以上에는 그系統如何는 明白히할수업다고하드래도 그것이우리民族化한것이라고 볼수는잇슴니다 이와가튼比較硏究는 대단히興味잇는問題이나 이것은後日을 期하고 그러나우리朝鮮由來의文學이란것이 漢文學의分家인感이 不無한點으로보아서는 童話亦漢文學思想의 影響이크게잇스리라고말할수잇스나 나는생각컨대 우리民族間에傳來하는童話가 今日에이르러組織的이나 系統的으로 硏究하기 어려운도록 典籍이乏한그것만큼 그가운데에는 民族味가잇는民族的創造라고아니할수업슴니다

그럼으로 이와가티 말함이 엇더한獨斷에서 나옴인지알수업스나 우리民族間에傳來하는 童話의內容情緖는 漢文學의影響이라함보다는 차라리佛敎思想이 그基調가되엇다고볼수잇스며 그것보다도民族的固有한 情操가 그가운데에더욱活躍한 것이라고생각할수잇슴니다 엇지하야 이와가티哀傷이固有情緖化하게된因果關係는 더말할것도업시 原因이結果가되고 結果가다시原因을지어 輪環聯鎖의關係를 만들은것이라고 볼수밧게업슴니다그럼으로 우리들이童話그것으로 말미암아 幼稚時에어든바 感銘이 잇다하면 그것은다시말할것업시 哀傷的氣分이라할것임니다

그런데 이것을 具體的으로 좀생각하라합니다 우리나라에 傳來하는童話에 『해와달』이란 것이잇슴니다 이童話의內容을 簡單히말하면

엇더한山中에 늙은寡婦가 男女셋자식을 두ㅅ는데 살기가 매우가난하야 하로는 뫼넘어洞里富者집에가서 방아를 찌어주고 먹을것을어더가지고오다가山中에서 猛虎를만나여러가지로哀乞하다가 結局은 그호랑이의 밥이되고 집에서 母親의도라옴을 苦待하든어린아이들도 그어머니로둔갑하여가지고온호랑이의에게禍를當하게되엇는데 그中에男妹두사람이 이患을避하야 집뒤안움물졋헤잇는 나무우에올나갓섯다 그러나 結局은 호랑이가 그나무로 올나오게되야 運命이瞬間에 逼迫하엿슬때에 두사람이 하누님에祈禱하야 동아줄을 타고하날에올나가서 한사람은해가되고한사람은 달이되엇다한다

이童話의內容을 생각할때에 外面에나타난그것으로만보면 참으로詩的이오空想的임니다 그러므로 엇더한意味에서는 童話로서 純化된것이라고생각할수잇슴니다 이러한反面에 그內容은어느곳을勿論하고悲哀가 가득함니다 그뿐아니라消極的이오退嬰的임니다 貧寒한 寡婦가 富者長者집에로 방아를 빌너갓다는것이알수업는厭惡를 늣기게됨니다 그리고오는길에서 어머니가밥어더오기를집에서 침을생켜가며 기다리다가 自己母親으로둔갑하고온바호랑이를여러번疑心하다가 畢竟어버이를 밋는어린이의純情으로 그猛獸를마저들여 어린어린동생을그 飼食을받들고 結局은男妹단둘이逃亡하야 움물가의나무에 올라갓다가 刻一刻으로危險하여오는瞬間에 하나님께동아줄을내려달라祈禱하야하날로올려가서해가되고달이되야 男妹두사람이恒常만날수업시 밤낫으로 이世上을비최어준다는것을 그것을部分部分으로생각하드래도 이것은어느곳어느마듸에 哀傷이아니나타난데가업슴니다 哀傷으로비롯하야 哀傷으로 끗츨막엇슴니다 이童話에넘치는情緖의基調는徹頭徹尾로哀傷이오退嬰的이오消極的이오 歎敎的이가운데에 호랑이가 나무우에숨은어린이의그림자를옴굴가운데에서 發見하고 『합박으로건지자! 죠리로건지자』하고노래부르는것은이童話中의 唯一한諧謔이라할수잇스나 이것을보고 아이가나무우에서 生命의安危가 目前에逼迫한그때에도 히히우섯다는것은 어린이의單純한感情을 表한것이라 無邪氣하고 도리혀 사랑스럽다고 생각할수잇스나 이것은차라리그純眞이란것보다도 우리民族의 大陸的悠長한氣分을表徵한것이라 볼수잇슴니다現代의아모리神經이날카워진대로날카워진 兒童이라도자긔의生命이危險한 그때에 일부러 나무에로逃亡해와잇스면서 호랑이하는짓이좀우습다고 히히 우스리라고는생각할수업슴니다 이것은哀傷이라는것보다도朝鮮의 固有한諧謔이나 悠長한것을遺感이업시發揮한것으로 볼수잇슴니다 낫분意味로解釋하면 우리民族的의 鈍感을 表하엿다할수잇고 好意로解釋하면 그悠長하고 純眞하고 詩人的風來는 他人의追從을不許할만치 되인것이라고도할수잇슴니다 全體로보면哀傷인것은以上에말한것과맛찬가지라고합니다 이童話만에限하야그리함이아니라 『콩죠시팟죠시』나 『호랑이의虛惡갑기』나其他모든固有한童話의內容을 分析하여보면亦是同一한哀傷的氣分이 流露됨니다 이와가튼童話들이약이할때에말하는사람은 목메인소리가나오고 듯는사람은 눈물이흘르고 한숨이나오게될것임니다

哲學的境地에서

李寅永

×

나의어리석은思索의一端을발다가도모를有松君에게보낸다

×

별々떨리는밤을옴기엿다 마음에는새빨간피가무덧다 재빗한울이나는荒凉한秋郊로 와원에 夕照는紅葉을더붉게하엿다 그첫게운듯고어첫게벌어진입새가 오붉은술을마시엿는지빨개젓다 고놈이래일이면大地에서썩을 것이다 그것을생각할적에마음은피가 무덧다 피못은마음이떨어지는바람에 넉에서지피가무덧다

그래서나새外만죽엄이 心魂사이에서情熱舞를추며 것잡을수업이나를니르덧다 그러나舞女는낫가린채아모말업섯다 右手로從容를힘ㅅ것쥐고서 죽엄을그곳으로向해는데 舞女는左手를웅켜쥐고 絶對의威力으로나를잇그럿다 그래서나는그더러이래케물어보앗다

『네얼골좀보자 너는엇더케생겻나?』

그러나그는애멸치게對答하엿다

『안돼요 모든것을당신에게알게하지만 내얼골만은몰게할수가업서요』

『그것은왜?』

『당신의阿諂하는 知識이무서우닛가』

『당신이그런에는 번개와벼락을무서워햇지요 그래서그놈을 병속에다집어너가지고 생야단을쳐대더니 지금은그놈을征服식히어가지고바휘를돌리며 붐을켜지요』

『그래너를 征服식힐가무서워서그러니』

『勿論이지요』

『그러면어데보자 네ㅅ가지것 우리는一로十을알고百을남며千을알수잇다 지렁이한마리가지고萬有의進化法則을밝어내인者는우리가아니냐?』

『그러치만 나만은 永遠히몰르리다』

『왜?』

『당신의知識의 分領속에는 나를너을수가업슴으로』

『그래도알라하면알지』

『아ㅡㅁ 알다하면 알지요 그러나바다속에드더가보아야 바로소바다와바다속의왼갓眞相을알수잇는것과맛찬가지로 당신이죽어야만비로소나의正體를 알을수가잇지요』

『죽다니?』

『당신의生命의絶滅말애요』

『보기실라!』

『무서운게로군』

『무엇이?』

『生命의絶滅! 너는모르는게로구나 나의生命을延長한나의子息이잇슴을!……나의子息은孫子를낫코孫子는曾孫을 이러케 旺盛하게生命이等比級數로느러가는것을모르는고나』

『銅錢七分가지고집사고영사고장가드는놈처럼 떠지기는잘떠지셈이다마는무척어리석으십니다그려』

『돗기실혀 커다란나무의입새가 天癡다 가을이면떠러지나 그것이죠금도나무의生命을업새지안음과ㄱ티 設或내가죽는다하드래도大生命은儼然히살어 잇는것이다』

『말로는한울의별도따지요 나무입이當場엉에서썩는것을보면서도大生命이얘요 아ㅡㅁ하기는子息孫子가늘비하지요 그러나그것이어듸당신의되오 당신도아니요당신의짝도아닌새로운무엇이요』

『그것은 勿論이지 나의子息은나도아니요 나의짝도아니지만 그것은全體로서의나이다 그全體로서의나는永遠히새로운힘을가지고創造하며進化해가는것이다』

『破滅하며 退化해가는것이지도모른지요』

『듯기실혀 우리는先祖가나리신文化를啓發식혀가며살고잇다 나는幽妙한藝術의永遠性은낫지못하지만이것만은自信키에마지안는다』

『自信! 당신의自信이라는것은너무좀잡을수업습되다 死後에좀더光明잇고平和스러운것과 永生을自覺한예수는十字架에걸것을生覺하고 『겟세마네』『東關에서悲絶哀痛한울음을울엇듭되다 死를 不完全한生의解放ㅡ로自信한예수가 『라사롯』의죽엄을 보고서울음듭되다』

『돗기실여』

『밥이막히면 『듯기실여』ㅅ소리밧게나오지안는법이지요』

『나는놀랏슴니다 당신의그 絶對의威力을 다시는不敬히굴지안을터이니당신의그힘의正體를내게가르처주십시요 당신의얼골을뵈여주시요』

『하는수업슴니다 이제는阿諂하는고나』

『아니올시다 이번는아모리당신의正體를알으라도征服ㅅ나무엇이니하는수작은절코하지안켓습니다 나는藝術도宗敎도哲學도다ㅡ버리겟습니다 다ㅡ만당신의正體를알기만하면나는아모것도所願이업겟습니다』(未完)

利害우에서

八峯山人

넘우도有名한 저象牙의塔에 對해서는 말하지도안는다 過去의文學者들中에 이넘우도有名한象牙塔의住民이되지안엇든 사람이 即完全히象牙의塔속으로避身하지못하고 半거충이로 지내든사람이 얼마나만흿섯는지알수업다 그리하야이두種類의사람들은 色좃회로맨든 표히공속에다 煙氣를하나갓득잡아느허서 하늘로뗘노듯이 自己네들의 몸둥아리에다 무지개가튼 헛되운들잡아느허가지고 땅에서날라서 星座의곳대기와지 다다틀여고하엿다 그들에잇서서는生活은第二義요 藝術이第一義라는것이엿다 塵世 俗世의일은아모래도좃흔것이엿다 그들에게는 現實을超越한다는것이 무엇보다도重大한要點이엿다 世紀를超越하고 實生活에서超越하고 人間界를超越하야 거룩하고 神가튼그무엇이되고자하얏다 저희들의藝術은 山絲도리우에 둥둥뜨는 뭉은구름과가티 地上을떠나서存在하기를懸念하엿든것이다 더군다나 利害關係는더러운것이라고斷定하야 그것을排斥하엿다 로만티스트가 이마지니스트가 삼볼리스트가 파큰낫시안이 ㅡ모든藝術至上主義者가。……그들은 實生活의世界에서 나오는 수지쏘각에지나지못한다

그들의눈에는한개의妖艶한 粉面紅裳의妖怪가잇섯든싸닭이다 머리에는기름을발른 서반지르르하고 왼몸의옷은 몸에적서서 추졸근하야 몸우에착드러부터잇고 아래동아리는 몸속에잡긴 妖艶한 鬼神이눈압헤잇서서 떠나지안앗섯든싸닭이다 물귀신ㅡ거늘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미칠또시 반한 藝術 이라는 귀신이다독가비다

그러나 그들이 괴운이다하고 脈이풀리거 이물귀신을엇지못하고느러질때 그들은細寶의쓰리고쓰른 기시지리우에집비저버렷든것이다 (勿論、사람이물귀신에게홀린가로 물가온데서서 이리오라고 손짓하는 귀신을붓잡으려야 到底히 귀신은 붓잡히지안을것이다 귀신이라는것은 손으로만질수업는것이닛가ㅡ)그들이 죽을때는 귀신에게홀려서 눈창에 씨웟든 한겁의엷은紗가벗겨지고 참사람다웁게되여가지고죽엇다 사람以外의무슨形體를으고서죽은것이아니다

×

詩人은 첫재사람이야한다

詩人은 둘ㅅ재 亦是사람이야한다

詩人은 셋재 또亦是사람이야만한다ㅡ

이말은 엇던다른사람이지은말도아니고 그런타고 내가지은말도 아니다 이말은널리 한울과땅안에 숨기어잇는말이다그만큼平凡하고그만큼참되다 얼마나이말이참되냐? 詩人은 첫재사람이야하고 둘재도사람이야하고 셋재ㄷ도 亦是사람이야한다 이세가지要件이 詩人되는條件이다 물귀신에게홀린다는條件도 땅바닥에서떠난다는條件 時代를超越한다는條件ㅡ그와가튼條件은 詩人되는要素가아니다 온건한사람 그것이 바람직한藝術家일는이다 詩人은사람以上의아모것도 아니고 또한同時에 사람以下의아모것도아니닛가

×

그러타 詩人은 온건한사람이다。속으로現實우에서살면서 것흐로現實을떠나서 구름가티 虛無한꿈만지으면무엇하느냐。 藝術이라는것은 사람의머리우 三百米突이나 五百米突위에서 바람에떠올라다니는구름이아니다 虛虛空空한곳에서 虛虛空空한곳으로오고가는 사람과아모관계업시이러난구름이아니다 땅속에서러나옴싱은싹이다 藝術은生活의斷片이아니고生活의統일뿐이다 全部다

그러면우리는 엇우에단단히 발을부치고 살어나가자 발이 空中으로써리면안되다 우리는 지금朝鮮이라는環境안에서 참酷한現實안에서 살어나가는사람들이다 우리의붓대는現實위가象牙塔의住民이아니닛가 우리귀신에게 홀린사람이아니닛가

×

우리는生活우에섯다 비록너희들이 生活至上主義者라고비웃는다하야도 죳다、우리는즐거히生活至上主義者가되겟다

우리는 利害우에섯다 비록너희들이 永劫悠久의世界를모르고 高遠한悟性이업는淺薄한사람 非藝術家라고한다하드래도 죳다、우리는즐거히그所謂非難을밧겟다 우리의눈앞헤잇는 이現實의 한쪼각이야말로 永遠悠久의母體다 어머니다 비록너희들이 非藝術家라고한다하드래도 우리는그所謂非難을 즐거히밧겟다 內容으로利害우에서는 너희들의外面에나타나는『利害를떠난다』는것을ㅡ 우리는비웃는다 내가가져야만할 나의生活을째앗기고 나와똑가튼우리가 가져야만할우리의生活이 우리에게업고 우리와똑가튼 全世界의백성들이가져야만한生活이 이백성들에게업다 生活이업는곳에목숨이업다 生活이업는곳에藝術이업다 목숨을떠난藝術이업ㅅ닛가 나의목숨을떠난 나의文學이업고 우리의목숨을떠난 우리의藝術이업스닛가……

지금우리는 우리의生活을갓지못햇다 보아라어느곳에우리의生活이잇는가를 업다 업다完全히업다

이리하여라!

이리하지마라라!

이두가지의命令아래에 우리의生活은左右된다 우리의목숨이左右된다 더다른것이라고는업다 오직 이것뿐이다『할事』『하지못할事』라고하는苛酷한命令은 죠희조각이우리의運命을支配하고잇다 우리의生活이 그죠희쪼각에째앗기고말엇다 건너다보히는無際限한視野에武裝한森林과가티 드러백인 느러서잇는 이苛酷한命令의槍劒이 서리ㅅ발가티 번득이고잇다 우리의목숨이 눈압헤부힌다 죠곰만잇스면우리의목아지가 우리의胸部를떠나서 영우에떠러지게도라 마치서리마진호박이 울너머로떠러지듯이 아아、命허할는이나 歎息할일이냐? 妖艶을귀신과가튼亡靈에에게붓잡혀서 우리의목숨을켜바려야할일이냐? 가이업고나 命흐기작이업서라! 되라! 되지안는다 우리에게서 한개의思想이 ㅅ리를듣고일어섯다 利害우에섯다

利害우에섯다生活을떠난목숨이업다生活을떠난藝術이업다 목숨을떠난藝術이업스닛가(完)

週間米話

…勢가低落하여야縮顆할수잇다 …고하든바▲참으로그…과如
…點으로보면아즉正米는더瓦落 …錄勢가有한듯하十期米는舊
…흔가운데에金融의梗塞이極度 …致하엿것만은二版十卅期의

大阪 三八、四二 東京 不明 / 高岡 桑名 三七、三五 三九、二七 東京 仁川 三二、九〇 不明 / ①三、九〇〇 ⑦四、三〇〇 / 二〇〇 / 地磨 毎石 三五、〇〇 原 摑(正味) 六斗 一、六〇 / 熟三八 一定 三三、〇〇

皮膚病退治 데ㅡ무水

皮膚病藥데ㅡ무水는皮膚病退治를目的삼고生긴바新時代의要求에適合한藥으로其効驗이速하고確實한것은말할것도업고 죠금도쓰리고저리지아니하고 냄새도업고 뜨압으로발러도더럽지아니하고눈에드러도關係가업스며適度의殺菌作用으로收斂作用까지하야 압흐고가려운것이업서지는 …

皮膚病藥 데ㅡ무水

異常히가렵고 진무름을防止하야 또헐고 보이면서 나니눈에 完治됨니다

◉濕疹、옴、곳진、陰蝕、陰部周圍搔痒症、水虫、버즘、헌데、腫物、빈대、모기의물닌데、쏘毒虫의刺傷、藥疹、옷오른데、것뎍等에特効잇슴니다

『데ㅡ무水』藥價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 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하오나在庫物이업는店은直接本舖로寄別하시오 送料二十錢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一八 東京藥院 振替東京六〇七四番 電話一八〇〇番 / 大阪市北區木幡町二五 東京藥院 振替大阪六〇八一番 電話北一三七八番

朝鮮藝術團一行

프로그람 第一部
一 獨唱 고향생각……
一 스로서아딴스……
一 小奇術 잔재죠네가지식……
一 歌劇 산고양이와토끼……
一 奇術 부지거쳐……
休憩十分間
一 스로서아딴스네가지……
一 滑稽 괴술농용……
一 歌劇 매암이와말똥구리……
一 催眠術 뜨거운쇠무러쓴키……
배우에돌깨치기
딸국에못박기

世界六大魔術 特約封切場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番

◎當十月十九日 弁社총
◉二大連續大會 米國유社特作 大活劇 幸運兒 全二卷
◉米國유社大作 連續活劇 幽靈財寶…… 全十二編二十四卷中 (最終編)第十一、十二編四卷上場
●佛國파ㅡ테社 冒險主찰쓰헷치 氏의代表的名作 大力劇
大連續探偵 冒險大活劇 伯林의狼 全十五編三十一卷中
苦待하시든 『問題의 世界的大連續』 그여히公開
◉近日公開 世界的大名畵 問題名畵 快傑단돈 全八卷 現東京帝國劇場封切中!!
◉近日公開될三大連續
連續活劇 佛國파ㅡ테本社大作 電光石火 全十五編三十卷
連續活劇 米國아ㅡ로社特作品 鐵火의라이쓰 全十五編三十一卷
連續活劇 米國유社特作品 다니엘풍 全十五編三十一卷
苦待하시요 大會時日!!
松竹弁社 特約 團成社 電話光化門九五九番

朝鮮文 神經衰弱性慾不全 化學療法 四六版美冊

增田醫學博士、常持醫學士 共著

本書의價値는讀者의實行에有함 神經衰弱、生殖器機能衰弱患者는一讀에生의歡喜를得하라 希望者는葉書로寄別하는대로無代進呈함

東京市銀座弓町二十二 弘濟藥院

●不景氣는來하얏슴니다! 如何한良策의方針을定할가
●來年은十一年만에(丑年)凶作의週期
開運의羅針盤! 失敗前에!

吉凶活斷

四柱推命 運勢大鑑 正文社

易者不要

▼▼▼가나다 만일一이라도 알고저하는사람이면 詳細한것을안다
人一代의運勢로부터月月、日日의吉凶을알수잇다
지금하는事業成不成?

◎洋裝 四六判 六百餘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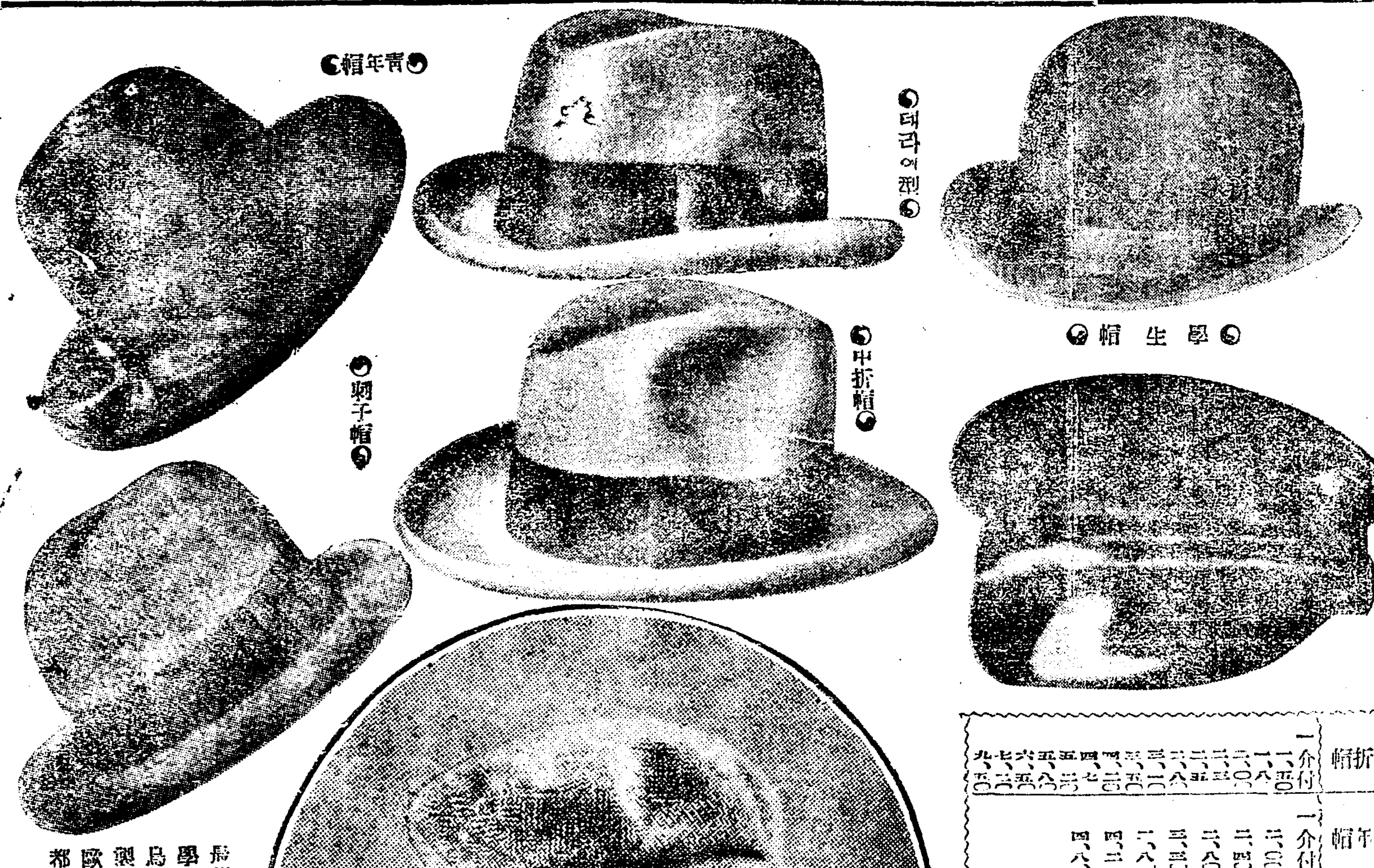
本書는易學의奧儀인四柱推命術을小橋正則先生이多年의苦心으로何人이든지頗히詳細하게生年月日、刻에依하야萬人萬種의運勢에吉凶處를明白히斷定하게編述한것이오니恒常本書를座右에配置하면禍가轉하야福이되여一身의繁榮과一家의和合이의심업는各自必備의大寶典이다 ▼內容一部▲九星干支吉凶의見法▼出生年、月日、刻에依하야吉凶▼希望者는新聞名을記載하야葉書로申込하시는대로代金引換으로▼其日其日의吉凶▼目下의事業이成功이냐失敗냐▼人々에依한適藥은?▼今後의方針은如何히決▼定될가?▼男女의相性▼緣談의不適?▼懷胎月의안法▼姓名의附法▼姓名判斷▼人相手相의早見法▼厄年의見法▼厄除法▼力位吉凶十二個月▼家夢判斷▼相場上下의大活斷▼病難의豫知▼其他數百項‖猶本書에

質問券을添附하면何事든지先生自解答

三世相寶鑑 一部無代添附進呈

特價 金二圓卅錢 代金引換 送料十二錢 前金 送料六錢

東京市麻布區富士見町六 正文社本店 振替東京一五八番 電芝五〇八〇



品名	價格
中折帽 一介付	一、五〇 一、八〇 二、〇〇 二、三〇 二、五〇 二、八〇 三、二〇 三、五〇 四、二〇 四、七〇 五、三〇 五、八〇 六、五〇 七、二〇 九、五〇
青年帽 一介付	二、〇〇 二、四〇 二、八〇 三、三〇 三、八〇 四、二〇 四、八〇
鵰子帽 一介付	二、〇〇 二、五〇 二、八〇 三、二〇 三、八〇 四、五〇 五、二〇
人形鳥打帽 一介付	一、一〇 一、二〇 一、〇〇 一、五〇 一、七〇 一、九〇 二、五〇 二、八〇 二、九〇 三、二〇 三、五〇
테리이型 一介付	自 三、〇〇 至 六、〇〇
中山帽 一介付	自 五、五〇 至 一七、〇〇
學生帽 一打付	三、三〇 五、七〇 六、六〇 八、二〇 一〇、四〇 一四、四〇 一七、〇〇 二五、〇〇 見色帽 三、五〇 見우단帽 三、〇〇

最新式 學生帽 鳥打帽 製造及 歐米帽 都散賣

……◇……

京城鍾路二丁目二十二番地 化泉帽子店 主 方漢容

專心專力

向上의一路로驀進하며 月로學理에蘊奧를硏究하야年年히內容의改善을重疊함으로品質本位의主義를高唱한지三十有餘年

最純의質 至廉의價

品質本位

花王石鹸

花王石鹸製造元 東京 合資會社 長瀨商會